

奎章閣 所藏 『高麗史』・『高麗史節要』・ 高麗時代 文集*

노 명 호**

- | | |
|------------|--------|
| 1. 머리말 | 4. 文集 |
| 2. 『高麗史』 | 5. 맺음말 |
| 3. 『高麗史節要』 | |

1. 머리말

한국학 자료의 寶庫인 규장각 소장 자료에서 고려시대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많은 자료 중에서 고려시대 연구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典籍인 『高麗史』, 『高麗史節要』, 그리고 수십 종의 文集들의 여러 가지 판본들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이 고려시대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전적들의 여러 판본의 소장만으로도 규장각은 고려시대 자료의 최대 소장처이다.

이 기초적인 전적들은 현재 영인본이 연구자들에게 보급되고 있지만, 규장각에 소장된 좋은 판본들을 저본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한 규장각 소장본을 영인하면서도 규장각 소장 여러 異本중에 가장 좋은 선본이 아닌 그보다 못한 판본을 영인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더구나 소장된 여러 판본들을 활용하여 교감한 판본을 만드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전적에 어떤 이본들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장각 목록집 등에는 이들 전적의 판본들에 대해 기초적인 사항이 잘못 파악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알 수 있는 것도 ‘불명’으로 기록한 것도 많다.

둘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본들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전적이 후대에 重刊되면서 誤字의 발생, 訂正, 탈락, 첨삭 등이 있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원래의 편제를 변형시켜 새로이 편집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본들을 종합 정리하여 교감한 현대의 표준본을 만드는 것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연구에도 얼마나 중요하고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일인지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필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본고는 이러한 규장각 소장 고려시대 기초사료의 異本들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토대가 되는 異本들에 대한 기초적인 서지적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리하려 한다. 어떠한 판본이 선본인지,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 어떠한 판본이고,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하여, 영인본이나 교감본의 저본이 될 것을 찾고, 저본을 보충해줄 대교에 이용될 수 있는 이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리하려 한다.

본고에서는 각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를 비롯한 解題에 해당하는 소개는 생략할 것이다. 이미 기존 해제들이 몇 가지씩 있고, 특히 규장각 소장본의 해제집이 간행되어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기존 목록집이나 해제에서도 소홀히 하여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소개한 각 판본의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사·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그 영인본 발간 실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영인본에 대한 검토도 현재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의 저본이 된 판본들에 대한 문제에 비중을 둘 것이다.

2. 『高麗史』

奎章閣에는 고려시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 사료인 『高麗史』 18질이 다음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3539: 世系1 목록2 137권 85책, 목판본
- ② 奎 3579: 世系1 목록2 137권 85책, 목판본
- ③ 奎 3269: 목록2 137권 101책, 목판본
- ④ 奎 7157: 卷首1 목록2 137권 50책, 목판본
- ⑤ 奎 5553: 卷首1 목록2 137권 46책, 을해자본, 일부 필사본[제8책(권19, 20, 21), 제26책(권73, 74), 제29책(권81, 82, 83)]
- ⑥ 奎 4720: 목록2 世系1 137권 61책, 필사본
- ⑦ 가람 951.04-J464ga: 89책(영본), 목판본
- ⑧ 奎 3467: 30책(영본), 목판본, 일부 을해자본[제6책(권52), 제26책(권135), 제27책(권 3), 제28책(권9 1~19帳결락, 10 11~38帳 결락, 44 1~6 11~22帳 결락, 45, 46, 110, 115)] 및 필사본 포함
- ⑨ 奎 5908: 56책(영본), 목판본
- ⑩ 奎 5554: 32책(영본), 을해자본 [卷首, 권9~16, 23~25, 29~35, 40~52, 56~70, 75~76, 79~82, 86~124, 129~137]
- ⑪ 가람 951.04~J464g: 19책(영본), 목판본(필사본 포함)

- ⑫ 奎 5874: 8책(영본), 목판본, 일부 을해자본[제3책 권131, 132], 일부 필사본
- ⑬ 일사 951.04-J464gb: 7책(영본), 목판본
- ⑭ 가람 951.04-J464gc: 1책(영본), 필사본
- ⑮ 일사 951.04-J464ga: 2책(영본), 목판본
- ⑯ 가람 951.04-J464g v.21: 1책(영본), 목판본
- ⑰ 古 951.04-J464g: 1책(영본), 목판본
- ⑱ 奎 26637: 1책(영본, 권110의 제21, 22, 23帳만 있음), 을해자본

『고려사』 규장각본 18질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善本인 乙亥字本の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고, 목판본중에서도 을해자본을 復刻한 최고 善本이 들어 있다. 1613년(光海君 5)에 印刊된 ①과 ②는 가장 정교하게 復刻된 선본이며 完本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崔漢綺의 수택본인 목판본의 완질이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列傳 권7>만을 필사한 42帳짜리 필사본이 있을 뿐이니, 규장각은 『高麗史』의 최고의 소장처이다.

그런데 『고려사』 소장본에 대한 목록이나 해제의 소개는 자세하지 않고, 관리상의 번호와 권호의 차례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乙亥字本을 새로이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면 본고의 끝에 붙인 <표 1>과 같다. 특히 기존 서지연구에서 판본마다 冊의 번호만을 소개하고 卷의 번호를 소개하지 않아, 실제의 책을 보지 않으면 어떤 권이 있고 없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각 권별 상태를 대조하여 놓았다.

匡廓의 크기를 보면, 같은 청구기호 내에 들어 있는 간본이라 해도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활자본과 목판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다. 광곽의 가로 크기는 활자본이나 목판본 모두 비슷하나, 세로는 활자본이 220~222mm인데 비하여 복각목판본은 199~215mm로 활자본보다 전반적으로 작고 편차도 크다. 이는 복각이라 해도 판목이 수축하거나 인쇄방법의 차이로 인쇄한 종이가 수축하거나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정교한 복각본이라 해도 목판본은 활자본과 판이 조금씩 다르다.

<표 1>에서 보는 바처럼 을해자본들은 같은 卷이 2~3개씩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을 대조해서 검토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동일한 조판을 가지고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조판의 형태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활자가 약간 돌아간 글자까지 일치한다. 다만, 책간에 지질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책, 심지어 같은 卷 내에서도 지질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잉크가 뭉치거나 흐리게 인쇄된 차이가 있어, 같은 조판으로 인쇄하였어도 인쇄상태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보존상태에 따라 파손되거나 변색된 차이도 심하다. 따라서 이들 複本도 모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奎 貴 5553>은 가장 完秩에 가깝지만, 권19·20·21·73·74·81·82·83의 여덟 권은 필사본으로 채워져 있다. 이 중 권81·82는 <奎 貴 5554>의 제18책의 것으로 채워지나, 권

19·20·21·73·74·83은 을해자본이 없다.

또한 <奎貴 5553>의 일부 卷들은 몇 글자씩 탈락된 면(帳)들이 있다. 권65는 제30~32帳의 각 장이 1~6글자씩, 권66은 제5~28장이 2~20자씩, 권132는 제1~16장이 1~3글자씩이 결락되었다. 이들은 다행히 <奎貴 5554>의 해당권들이 양호한 상태라서 대치될 수 있다. 특히 권132는 <奎 5874>에도 양호한 상태의 것이 들어 있다.

결락된 글자들은 <奎貴 5554>의 활자본에도 있다. 권101의 전체가 하단 1~3글자씩이 불에타 떨어져 나갔고, 권104의 제31~55장은 1~8글자씩이 종이 가 삭아 떨어져 나갔다.

글자의 탈락과는 별도로 표지에 먹인 蜜蠟이 녹아 스며들거나, 물에 젖거나, 불에 타는 등으로 지면이 심하게 변색되고, 훼손된 卷秩도 있다. <奎貴 5553>의 권10의 제1~4帳, 권31의 제29~37장, 권42의 제1~4장, 권51의 제1~2장, 권66 전체, 권67의 제1~18장, 권75의 1~5장, 권85의 45~7장, 권112 전체가 그렇다. 밀랍으로 변색된 면들은 변질된 밀랍에 의해 검붉게 변색될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경화되어 부스러질 위험도 있다. <奎貴 5554>의 권16의 제46장은 변색되고, 권62·63·64 전체는 각 장의 여백부분이 조금씩 불탔다.

『高麗王朝實錄』이나 기타 『高麗史』 편찬시에 참고된 중요 자료들이 전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高麗史』는 한국사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500년의 역사에 대한 최고의 史籍이며, 그 중 최고의 선본인 乙亥字本과 乙亥字本의 누락을 보충해주는 목판본들은 國寶 내지는 寶物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규장각에 소장된 이 훌륭한 『高麗史』 판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高麗史』는 우선 1908년 日本 國會刊行會에서 活版本으로 간행한 것이 있으나 오자가 많고, 1948년 국제신문사에서 서울대 소장 木板本으로 영인한 것이 있으나 『世家』 부분만 영인 간행한 것이다. 게다가 이 두 가지는 구하기도 어렵다.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판본으로는 1955년 延世大學校 소장 東方學研究所에서 崔漢綺의 수택본 木板本을 중심으로 일부 누락된 부분을 규장각 소장본으로 보충하여 영인 간행한 것(景仁文化社本)과 1972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奎章閣 소장의 乙亥字本을 영인 간행한 것이 있다. 그런데 『高麗史』는 양장본으로 3책에 불과한 분량인데도, 이들 판본은 질이 낮은 엮기의 인쇄로 인하여, 글자들이 선명하지 않은 지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축소 인쇄하여 細注의 작은 글자들은 까맣게 뭉개져 읽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高麗史』는 아니지만 현존 『高麗史節要』의 가장 좋은 판본인 일본 蓬左文庫 所藏本 『高麗史節要』를 일본에서 영인한 것이 작은 글자들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품질의 인쇄로 되어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亞細亞文化社本이 현재로서는 보급되고 있는 영인본중 유일하게 을해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나은 책이다. 그러나 조악한 인쇄상태도 문제이지만, 『고려사』의 여러

좋은 판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을해자본을 영인하면서, 규장각에 있는 을해자본 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목판본으로 대신 찍은 부분들이 그것이다. 아세아문화사본은 권19·20·21·31·73·74·77·78·79·81·82·83을 목판본으로 대신 넣어 찍었다. 이 중 권19·20·21·73·74·83은 을해자본이 없으므로 목판본의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권31·77·78·79·81·82는 을해자본이 있는데도 목판본을 영인한 것이다.

또한 같은 활자본이라도 2개 이상의 판본이 동시에 남아 있을 경우 인쇄 상태나 보존 상태가 나쁜 면은 인쇄상태가 좋은 것을 찾아 영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판본에 따라 인쇄 상태나 보존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아세아문화사본에는 여러 판본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면을 그대로 영인하여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면들이 적지 않다.

1991년에 신서원에서 북한의 고려사 번역본에 이 을해자본을 단락별로 오려 붙여 간행한 『북역 고려사』가 있으나, 번역에도 문제가 많고 오려 붙인 영인본의 인쇄 상태 역시 아세아문화사본의 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신서원본 『북역 고려사』의 내용을 1999년 전산매체로 출판한 것이 국내 누리미디어(주)에서 출간한 『CD-ROM 고려사』이다. 출판 매체의 면에서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검색 등에 편리해졌으나, 내용면에서는 북한 번역본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미지 파일로 제공한 원문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을 스캐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상태가 아세아문화사본과 마찬가지로이다. 1982년에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간행한 『譯註高麗史』 역시 최근 30여년간의 연구성과들이 반영되지 않아 역주에도 문제가 있지만, 활자로 인쇄된 『高麗史』의 원문은 오자가 많아 이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한국사의 허리부분의 500년에 달하는 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史書이자 史料인 『高麗史』의 제대로 된 영인본이나 활자본조차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학계는 규장각에 소장된 국보급의 『高麗史』 판본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제대로 된 영인본을 간행하는 것이다. 細注도 잘 보이는 크기의 판형과 제대로 된 품질의 인쇄는 물론이고, 善本인 을해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모든 『高麗史』 판본을 대조하여 다른 글자들을 注로 표시하는 교감을 해야 한다. 현재의 『高麗史』 판본들에는 서로 다른 글자들이 발견되며, 선본인 을해자본에도 오자가 발견된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연구자들은 한 책을 가지고 모든 판본들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高麗史』에 쓰이고 있는 여러 異體字들을 읽기 쉽게 正字로 주를 달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교감본에는 아울러 기본적인 표점을 부가하여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高麗史』에는 많은 인명과 제도명 등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해독능력과 고려시대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표점을 부가할 수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의 표점을 보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표점작업이 될 경우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지는 정교한 교감 영인본은 『高麗史』의 표준판본으로서 널리 활용되며, 길이 후대에 남을 것이다. 『高麗史』의 초간본을 비롯하여, 을해자본조차 완본이 남아 있지 못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현대에 남아 있는 판본들을 토대로 온전한 『高麗史』를 복원하여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앞의 교감·표점 영인본이 완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교감과 표점을 더한 전산조판본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高麗史』의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을 바탕으로 한 전산 텍스트 파일이 서울대 중문과 허성도 교수가 중심이 된 한국사료연구소에서 만들어져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다(<http://www.clepsi.co.kr/eduline/hsy/index.asp>). 이 『高麗史』 텍스트 파일은 고려시대 연구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교한 교감본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 파일이 다시 보완된다면, 그것을 전통적인 인쇄본 책으로 출판하고, CD-Rom으로 전자출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교감 전산조판본은 위의 교감 영인본과 대조하며 읽을 수 있게, 제대로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함께 전자출판본에 수록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전산 조판본과 앞의 교감 영인본은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보완된 『高麗史』 역주본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함께 수록하여, 원문과 대조하며 읽을 수 있게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高麗史節要』

『高麗史節要』는 1424년(世宗 6)에 尹淮등이 撰한 『讎校高麗史』를 바탕으로 한 책으로 『高麗史』의 내용과 동일한 서술도 많지만, 『高麗史』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아, 고려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즉 일반적으로 ‘절요’라는 명칭이 本史의 요약본인 것과 달리, 『高麗史節要』는 나름의 독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려시대 연구의 또다른 기본 史書인 것이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에 5권이 소장되어 있는바, 기존 목록집에 잘못 소개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다른 알려진 중요 간본들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奎 3556: 31권 23책, 零本, 乙亥字本, 19자×10행
권19만 甲寅字本, 17자×10행
권5·6·18 결본
- ② 奎 3566: 2권 2책, 零本, 甲寅字 初刊本, 17자×10행
권20, 권23만 있음
- ③ 古 4240-3: 11권 11책, 甲寅字 初刊本, 17자×10행

권3, 7, 8, 11~14, 17~20, 23~26, 29, 30, 33¹⁾

④ 古 4240-1: 35권 23책, 完帙, 필사본, 19자帙10행

⑤ 奎 15658: 35권 23책, 完帙 필사본, 19자帙10행

(이상 규장각 소장본)

⑥ 國貴-493, 일산 貴 2140-4: 14권 8책, 甲寅字本,

권4, 7~10, 12~18, 27~28

⑦ 國貴-222, 한-53-나4: 2권 2책, 영본, 乙亥字本,

권6, 11

(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⑧ 일본 蓬左文庫本: 35권 35책, 完本, 甲寅字 초간본

① <奎 3556>은 기존의 목록과 해제에서 갑인자본으로 소개되어 있으나,²⁾ 第12冊의 권19만이 갑인자본이며 나머지는 을해자본이다. 또한 권19는 결권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갑인자본으로 채워져 있다. 두 필사본, ④ <古 4240-1>과 ⑤ <奎 15658>은 이 ① <奎 3556>을 필사한 것이다. 행당 글자수를 맞추어 필사하였고, 저본의 落帳 부분은 물론 글자가 떨어져 나간 것도 공백으로 표시하였고, ⑤ <奎 15658>은 붉은 점선으로 탈락부분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본은 앞에서 언급한 ① <奎 3556>의 권19와 ② <奎 3566>, ③ <古 4240-3>이다. 이들은 蓬左文庫本과 동일한 판으로 인쇄되었다. 이들은 활자체나 판심 등이 같은 것은 물론 활자가 일부 돌아가거나 좌우상하로 밀려 쏠린 것까지 그대로 일치한다. 봉좌문고본은 유일한 완본이지만, 이들의 일부 帳들은 봉좌문고본보다 잉크의 농담등 인쇄상태가 좋은 것도 있다.

③ <古 4240-3>은 여러 권의 앞뒤 표지 안쪽에 '月城孫氏家藏', '雪坡堂莊'의 장서자 표시가 있으며, 높은 열람빈도로 종이가 닳아 판심쪽 접은 선은 전부 찢어지고 좌우상단이 말려서 접힌 帳이 많다. 특히 권19의 하단부 판심쪽은 일부 글자들이 결락되었고, 제1·2帳은 8자 정도씩이 결락되었다. 제책도 부서져 책장들이 떨어진 것이 있다.

① <奎 3566>은 2권만이 남아 있으나, 인쇄상태와 보존상태가 좋고, 파손이 전혀 없다. ① <奎 3556>의 제12책에는 권19·20·21이 함께 묶여 있는데, 이 중 권19만이 갑인자본이다. 인쇄상태가 좋은 帳들이 많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을해자본은 ① <奎 3556>이 현재 알려진 을해자본 중 가장 충실한 판본이지만 결권이 있고, 일부는 파손이 심하다. 권3의 경우 앞부분은 각 帳이 1~2자씩, 뒷부분은 20여자씩 탈

1) 기존의 목록과 해제집에서는 권8, 14, 18, 20, 24, 26, 30이 缺卷인 것으로 잘못 소개되어 있다.

2) 『奎章閣韓國本總目錄』, 26면: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1』, 8면.

락되었다. 권33은 각 장의 하단 중앙이 불에 탄 듯 탄화되어 결락되어 10~20여자씩 결락되었다. 권34는 상단 책을 묶은 부분이 탄화되어 결락되어 앞부분은 1~2글자, 뒷부분은 10여자씩 결락되었는데, 중간부분은 양호하다.

규장각 소장 활자본 고려사절요를 권별로 대조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권호에 따라서는 복본도 있지만, 갑인자본과 을해자본을 합쳐도 결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高麗史節要』의 근대 이후 간행본으로는 우선 1932년 朝鮮史編修會가 奎章閣 을해자본 <奎貴3556>을 저본으로 『朝鮮史料叢刊』 제1로 영인·출판하였는데, 권5·6·18의 3권이 빠져 있었다. 현재의 규장각 소장 활자본들을 모으면, 우선 갑인자본에서 권18이 보충되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이용하면 권18도 보충된다. 다만 권5의 누락은 보충할 수가 없다. 조선사편수회 1차 영인후 일본 名古屋의 蓬左文庫에 甲寅字 初刊本 完本이 있는 것이 알려져, 앞서 영인할 때 빠진 3권 및 進箋·凡例·修史官·目錄을 1938년에 『朝鮮史料叢刊』 제18, 『高麗史節要補刊』을 영인·출판하였다. 蓬左文庫本은 1959년 末松保和의 解題를 붙여 日本 東京學習院 東洋文化研究所에서 영인·출판하였다. 蓬左文庫本은 『高麗史節要』의 가장 좋은 판본이며, 유일한 완본이다.

그 후 1960년 서울대 奎章閣本(奎貴 3556)을 저본으로 서울 東國文化社에서 영인본을 출판하였다. 글자의 탈락을 『고려사』나 『동국통감』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써넣는 등으로 보충을 시도하였으나, 蓬左文庫本은 물론 국내소장 『고려사절요』 활자본들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1972년 서울 아세아문화사에서 蓬左文庫本을 저본으로 한 學習院 영인본을 다시 영인하여 再刊하였다. 또 1966년 民族文化推進會에서 『국역 고려사절요』를 출간하며, 그 끝에 활자화한 원문을 덧붙였다.

현재 일반에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과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본이고, 간혹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일본 學習院 영인본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아세아문화사본은 학습원 영인본을 영인한 것인 데다가 질이 낮은 엮가의 인쇄로 제작되어 글자가 선명하지 않아 읽기에 불편하고,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에 수록된 활자화된 원문은 오자가 많다. 현재 고려시대에 대한 기본 사서의 하나인 『高麗史節要』는 가장 좋은 판본이 국내가 아닌 일본에 있으며, 양장본으로 1책 분량에 불과함에도 근현대에 간행된 제대로 된 판본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세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高麗史節要』의 현대 간본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선본을 저본으로 모든 간본을 대조하여 교감주를 붙인 제대로 된 영인본을 간행하는 것이다. 교감에서는 『高麗史』의 내용과도 대조하여 그와 다르거나 『高麗史節要』에만 있는 내용도 교감주로 드러내어 『高麗史節要』의 가장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쉽게 활용하게 해주는 일

〈표 2〉 규장각소장 활자본 『고려사절요』

	갑인자본						을해자본				
	貴古4240			奎貴3566		奎貴3556					
	권	책	帳	권	책	권	책	권	책	帳	
1								1	1	46	
2								2	2	66	
3	3	1	63					3	3	57	
4						*		4	4	59	
5											
6											*
7	7	2	45			*		7	5	41	
8	8	2	40			*		8	5	36	
9						*		9	6	51	
10						*		10	6	48	
11	11	3	60					11	7	54	*
12	12	4	61			*		12	8	54	
13	13	5	32			*		13	9	47	
14	14	5	46			*		14	10	41	
15						*		15	10	41	
16						*		16	11	40	
17	17	6	53			*		17	11	48	
18	18	6	58			*					
19	19	7	48			19	12	←	←		
20	20	7	50	20	1			20	12	45	
21								21	12	44	
22								22	13	39	
23	23	8	37	23	2			23	13	33	
24	24	8	55					24	14	49	
25	25	9	59					25	15	53	
26	25	9	46					26	16	42	
27						*		27	16	38	
28						*		28	17	40	
29	29	10	35					29	17	31	
30	29	10	45					30	18	40	
31								31	19	35	
32								32	20	44	
33	33	11	55					33	21	49	
34								34	22	68	
35								35	23	60	

※ * 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이다. 또한 『高麗史節要』에 쓰이고 있는 여러 異體字들을 읽기 쉽게 正字로 주를 달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교감본에는 아울러 기본적인 표점을 부가하여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교한 교감을 한 『高麗史節要』는 표준본으로 활용되며, 후세에도 남겨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국내에 『高麗史節要』의 갑인자본 원본이 남아 있지 못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현대에 남아 있는 간본들을 토대로 온전한 『高麗史節要』의 간행본을 만들어 활용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제대로 된 전산조판본을 만드는 것이다. 앞의 교감 표점 영인본이 완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교감 전산조판본을 만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교한 교감본을 바탕으로 전산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그것을 인쇄본 책으로 출판하고, CD-Rom으로 전자출판을 할 수 있다. 이 교감 전산조판본은 위의 교감 영인본과 대조하며 읽을 수 있게, 그 이미지 파일을 함께 전자출판본에 수록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3. 文集類

고려시대 사료의 중요한 한 가지는 문집류이다. 한 개인의 詩나 文을 모아 놓은 문집은 자료가 부족한 고려시대 연구에 귀중한 문헌 자료이며, 더구나 문집자료는 대부분 그 당대인이 직접 쓴 글이라는 점에서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와도 달리 그에 수록된 것들은 1차 사료에 가까운 자료들이 많다.

고려시대에도 많은 문집들이 편찬되고 있었던바, 眞靜國師 天頤은 1241년에 쓴 『答芸臺 亞監閔昊書』에서 그 당시 전해 오는 문집을 남긴 사람들이 ‘數十家’라고 하였다.³⁾ 지금 남아 전하는 고려시대 문집은 거의 대부분이 13세기 중반 이후의 인물이므로 天頤이 말한 수십 종의 문집은 대부분 현재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13세기 중반 이후 인물의 문집도 지금 남아 전하는 것은 그 일부이다.

고려왕조가 망하는 1392년 당시 30세 이상이었을 인물들에 한하여 그들의 문집이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40여 종으로, 그 이분들 모두의 책수는 390여 책에 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문집 중 16세기 이전에 편찬된 것 1종과⁴⁾ 17세기 이후 20세기초에 편찬된 9종만이⁵⁾ 규장각 소장 고서 속에 들어 있지 않다. 고려시대 인물의 알려진 전체 문집

3 『湖山錄』 권4: 許興植, 1995, 『眞靜國師와 湖山錄』(서울: 민족사).

4 李承休(1224~1300)의 『動安居士集』(고려명현집1, 한국문집총간 2)이 규장각에 고서로 소장되어 있지 않다. 단, 『帝王韻紀』는 규장각에 고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5 閔思平(1295~1359), 『及菴詩集』(한국문집총간 3).

鄭(1309~1345), 『雪谷集』(한국문집총간 3).

저자의 8대손 鄭逮가 1609년 중간한 『西原世稿』(정포, 정충, 정해 등) 중에서 발췌 수록한 것이다(계명대 중앙도서관장본 8811.082, 2권).

의 대부분이 그것도 그 대부분이 중요한 善本들로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은 고려시대 문집의 최대 소장처이기도 한 것이다. 더구나 규장각에는 같은 문집이라도 여러 다른 이본들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후기 이후에 편찬된 문집들의 경우 『東文選』, 『東國輿地勝覽』, 기타 詩文集 등에서 해당 인물의 詩文을 모아 편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서 대개 사료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한 개인의 글들을 여러 곳에서 조사하여 모아 놓음으로써 그 원자료를 대조·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연구에 편리함과 참고되는 바가 있고, 종종 문중 등에 내려오던 중요한 자료를 함께 묶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제 규장각 소장 고려시대 인물의 문집을 그 생몰년을 기준으로 차례로 하나씩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西河先生集』은 林椿(1150년경~1190년경)의 문집으로, 현재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판본이 전하고 있다.

- ① 古 3428-466-1.2: 2책 6권(제1~6권)
- ② 一叢古 819.4-Im1se: 1책 3권(제1~3권)
- ③ 一叢古 819.4-Im1s: 1책 4권(제3~6권)

①과 ②는 모두 癸巳年(1713)에 重刊된 목판본인데, 대체로 ①이 좀더 잉크가 고르게 찍히는 등 인쇄상태가 좋은 편이고, 6권 전권이 있는 완본인데 대하여, ②는 3권만의 영본이다. 단, 내용에는 관계 없지만, ①은 각권 첫머리 1·2행 하단 공란에 찍은 장서인으로 보이는 부분을 오려낸 것이 파손이라면, 파손이다. 권6의 경우 3개의 장서인을 찍은 것이 남아 있다. ②의 경우는 이러한 파손은 없다.

이 癸巳年 중간본은 자체가 미려하며 목판의 목각이 정교하고 오자도 적어, 대동문화연구소에서 영인한 『고려명현집 2』에 수록된 1865년에 간행된 조악한 字體와 오자도 많은 木活字本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판본이다.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에 고려시대 목판본 『西河集』이 있지만 완본이 아닌 제4·5권만이 있는 零本(TK5568.2/494)이므로, ①은 현존 『서하

鄭樞(1333~1382), 『圓齋集』(3권 1책, 고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본 귀348, 일부 낙장 고대 중앙도서관장 『西原世稿』(D1-A1922)에서 보충, 한국문집총간 5).

邊安烈(1334~1390), 『大隱先生實記』(한국역대문집총서).

成石璣(1338~1423), 『獨谷集』(한국문집총간 6).

李存吾(1341~1371), 『石灘集』(고려명현집4, 한국문집총간 6).

李詹(1345~1405), 『雙梅堂藏集』(한국문집총간 6).

河崙(1347~1416), 『浩亭集』(한국문집총간 6).

鄭摠(1358~1397), 『復齋集』(한국문집총간 7).

조선시대 후손 등이 고려시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實記’, ‘~遺事’, ‘~行狀’ 등의 글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문집이 아니므로 규장각 소장본의 집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규장각에도 이러한 류의 서적들이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는바, 이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려 한다.

집』의 완본 중에서는 최선분이라 할, 귀중한 판본이다. 엔칭도서관본은 목판의 새김이 거칠고 자체가 미려하지 못하여, 이 면에서도 규장각본은 좋은 판본이다. 이 규장각본 권6의 끝에는 목활자본에 없는 貞祐十一年(1223)에 崔瑀가 쓴 跋文이 있다. 『한국문집총간 2』의 영인은 이 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③은 계사년 중간본의 復刻本인데, 언뜻 보면 차이가 잘 나지 않지만, ①·②보다 목각이 정교하지 않아 필획의 굵기나 길이, 結句 등에서 조금씩 字體의 균형이 깨져 있다. 그러나 1865년에 간행된 목활자본에 비하면, 좋은 판본이다. 이 복각본은 갑오년 重刊書가 있는 바, 갑오년은 1774년이나 1834년으로 보인다. 책의 크기도 ①·②가 193×285, 191×284mm인 것에 비하여 208×317mm로 훨씬 크다. 현재 제3~6권만을 한 책으로 묶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분량이 적은 제1·2권을 빼고 분량이 큰 4권을 함께 묶은 것은 것은 원래의 제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破閑集』은 李仁老(1152~1220)의 저술로 규장각에는 1650년대말에 重刊된 목판본 1冊,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奎 5275). 이 규장각본은 대동문화연구소의 영인본(『고려명현집 2』)의 저본과 같은 목판으로 찍은 책인데, 영인본의 저본과는 달리 낙서가 되어 있지 않다. 卷上의 첫 장과 卷下의 끝 장, 그리고 발문 부분에 부분적으로 종이가 남아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깨끗하다.

『東國李相國集』은 李奎報(1168~1214)의 시문을 만년에 본인이 직접 편집한 문집이다. 규장각에는 세 가지 판본이 있는데, 같은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지만, 찍은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판본은 책-권의 구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함께 대조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위 세 가지 판본은 모두 같은 판목으로 찍은 것이다. 세 판본 모두 匡郭의 크기, 서체, 판각상태 등이 동일하다. 그러나 제책된 책의 크기나, 권-책의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인쇄한 시기가 많이 차이났던 것으로 보인다.

② <奎 4938>, 弘文館 藏書印本은 세 판본 중 인쇄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다. 이 판본은 판목의 상태가 보다 양호한 때에 찍은 것으로 필획이 뚜렷하게 제대로 살아 있다. ②에 비하여 ① 시강원 장서인본이나 ③ 蘇湖莊 장서인본은 같은 글자의 필획이 일부 떨어져 나간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② 판본은 다른 두 판본보다 오래 전에 인쇄된 가장 좋은 판본이며, 보존 상태도 좋다. ①보다는 ③이 인쇄된 시기가 더 앞 섰던 것으로 보이며, 책-권의 구성도 奎集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③은 ①과 유사성이 더 많다.

② 홍문관 장서인본은 세 가지 중 최선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한 가지 판본이 있지만, [國(貴-3, 한-46-가1850)] 4책(권18~22, 31~34, 35~37, 38~41)의 영본이고, 『고

〈표 3〉 규장각 소장 『東國李相國集』

	① 奎 5270	② 奎 4938	③ 古 3428-834
印	侍講院	弘文館	蘇湖莊
卷	1책 序, 年譜序, 권1~3 2책 권4~7 3책 권8~11 4책 권12~15 5책 권16~19 6책 권20~23 7책 권24~26 8책 권27~29 9책 권30~33 10책 권34~37 11책 권38~41 12책 後集序 권1~4 13책 권5~8 14책 권9~12, 誄書, 墓地銘, 跋尾(嗣孫益培), 교감자 명단	1책 序, 年譜序, 권1~3 2책 권4~7 3책 권8~11 4책 권12~16 5책 권17~21 6책 권22~25 7책 권26~28 8책 권29~33 9책 권34~37 10책 권38~41, 跋尾(嗣孫益培) 교감자 명단 11책 後集序 권1~4 12책 권5~8 13책 권9~12, 誄書, 墓地銘	(1)책 권9~11 (2)책 권34~37 (3)책 권38~41, 跋尾(嗣孫益培), 교감자 명단 (4)책 후집서, 권1~4 (5)책 권5~8 (6)책 권9~12, 誄書, 墓地銘
책 크기	202×312mm	272×195mm	298×200mm

려명현집 1』의 『동국이상국집』 영인본의 저본은 장서인이 나타나지 않아, 규장각본과 별도의 판본으로 보이는데, 이들 두 판본과 비교해서도 ②는 최선본이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1·2』의 『동국이상국집』은 ①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①도 판목의 글자상태가 심하게 손상된 것은 아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만, 가장 좋은 판본을 영인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역대문집총서 7~10』의 영인본도 『고려명현집』의 경우처럼 저본을 밝히지 않았지만, 장서인과 인쇄상태 등으로 보아 ①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南陽先生詩集』은 白賁華(1180~1224)의 시를 모아 놓은 것으로 규장각에 목판본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奎 7670). 2卷 1冊(24張)의 얇은 책인데, 중간에 결락된 帳이 여럿 있고, 판목의 상태가 훼손이 심하여 글자를 알아 볼 수 없는 帳이 대부분이다. 『한국문집총간 2』의 영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고(국중 고3644-130), 『고려명현집 5』의 것은 저본을 밝히지 않았지만 규장각본이 저본은 아니다. 세 판본은 모두 같은 판목으로 찍어 낸 것이고, 모두 이미 판목의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찍어 내어 인쇄상태가 극히 나쁘다. 거의 알아 보기 힘든 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帳의 결락이 덜한 것이나 글자의 선명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문집총간 2』 영인본의 저본이 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약간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큰 차이는 없다.

세 판본 모두 상권은 3~8, 15, 16, 35, 36장이 결락되었고, 규장각본의 경우 11장도 결락되었다. 하권은 2~5, 16, 17장이 세 판본 모두에서 결락되었다. 그리고 규장각본은 6·장이 결락되었고 『고려명현집 5』와 『한국문집총간 2』 영인본은 12·13장이 결락되었다. 그런데 결락되지 않은 장이라 해도 글자를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장 중에는 제본의 순서가 바뀐 것도 발견된다. 규장각본의 경우 하권 12·13장 부분에 한 장이 더 들어 있지만, 장 번호를 판독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장을 제본하며 잘못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補閑集』은 崔滋(1188~1260)의 저술로 규장각에 다음의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

① 奎 4580: 木版本 1冊, 序, 上·中·下卷

② 奎 4707: 木版本 1冊, 序, 上·中·下卷

두 판본은 1659년에 판각된 같은 목판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 목판이 손상되어 필획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인쇄된 것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두 판본 모두 책 앞부분 崔滋의 서문과 책 끝부분 하권 끝에 종이가 남아 떨어져 나간 필획들이 있지만, 두 책의 떨어져 나간 부분이 달라 서로 보충될 수 있다. 侍講院 장서인이 있는 ①은 책 군데 군데 朱書된 것들이 있다.

『고려명현집 2』의 영인본도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영인본을 찍을 당시만 해도 책장의 필획이 손상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그 원형이 좋았던 때에 찍은 영인본의 인쇄상태가 조악하다는 점이다.

『梅湖遺稿』는 陳澹(?-1200-1215-?)의 시문을 모아 18세기 후반에 木活字本 1 책으로 간행한 것인데, 규장각에는 이 木活字本 한 책이 소장되어 있다(奎 7003). 『한국문집총간 2』와 『고려명현집 2』의 영인본도 이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매호유고』는 동일 목활자 조판으로 여러 차례 인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영인된 판본 중에서는 규장각본이 가장 선본으로 보인다. 『한국역대문집총서 11』의 영인본은 저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규장각본보다 후대에 인쇄된 것이라, 일부 목활자의 획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었고, 跋文에서는 조판을 다시하여 帳數를 줄이고, 부록으로 진화의 조선시대 후순 12명의 시문을 끝에 덧붙였다.

『止浦先生文集』은 金坵(1211~1278)의 시문집으로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세 질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1330: 3권 2책, 책233×363mm
- ② 奎 1331: 3권 2책, 책235×363mm, 弘文館印
- ③ 古 3428-110: 3권 2책, 책215×315mm

세 판본은 1801년에 처음으로 판각된 같은 판목으로 인쇄되었다. 3권-2책의 구성(乾책: 序, 목록, 1·2권: 坤책: 3권, 跋), 광곽의 크기, 서체, 판각된 상태 등이 일치한다. 다만 책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나, 판목의 마멸 상태의 차이 등은 거의 발견하기 어려워 인쇄될 때의 판목의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쇄상태나 보존상태는 세 판본이 각각 다르다. 잉크의 농담, 선명도 등 인쇄상태는 ①과 ②가 정성들여 인쇄된 판본이며, ③은 이 점에서 뒤지며, 지질도 다른 두 판본만 못하다. 한편 보존상태는 ①이 두 책 모두 앞 뒤 장에 좀벌레에 의해 손상된 글자들이 있고, ②도 경미하지만 약간 종이 먹었으나, ③은 충해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문관 장서인이 있는 ②가 가장 좋은 판본이다.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 2』와 경인문화사의 『한국역대문집총서 11』의 영인본은 모두 ①을 저본으로 하였다. 『고려명현집 2』의 영인 저본은 장서인으로 보아 ①은 아니나, ①과 같은 판목으로 인쇄된 책이다.

『晦軒先生實記』는 安珣(1243~1306)의 詩文 몇 편과 行蹟, 年譜, 안향과 관련된 조선시대 저명 儒者들의 글, 門人錄 등을 담은 조선후기에 편찬된 책이다. 1764년에 초간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重刊되었는데, 규장각에는 다섯 질이 다음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 ① 一蓑古 819.4-Anlh: 木活字本, 4卷2冊
- ② 古 4655-27A: 木活字本, 4卷2冊
- ③ 古 4655-27 木版本, 5卷3冊중 권5 제3책이 缺落된 零本
- ④ 奎 6882, 筆寫本, 2권 1책
- ⑤ 古 4655-27B, 筆寫本, 4卷2冊

①은 1884년에 3刊된 목활자본으로 규장각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간본이다. 내용도 다른 후대의 판본들에 증보된 것을 포함하지 않고 권4는 門人錄으로 끝난다.

②는 ①과 같은 내용에 太學館儒通諭諸道校院文 등 약간의 내용을 첨가하고, 발문을 ①의 22대손의 것에서 20대손의 것으로 바꾼 판본이다.

③은 기존의 목록집이나 해제집에는 결락 상태를 소개하지 않고 4권 2책으로도 소개되었고, 5권 2책으로도 소개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③은 5권 3책 중 4권 2책이 남아 있는 영본이다. 규장각본 ③은 마지막 책인 제3책(제5권)이 결락된 영본이다.

20세기에 들어와 편찬된 ③은 ①·②의 편차를 전반적으로 크게 바꾸고, 祭享에 대한 글

들과 안향을 숭상하는 글을 대폭 첨가하여, 5권 3책으로 늘어난 것이다. 『회헌선생실기』의 5권 3책 완본은 비교적 여러 질이 알려져 있는바,⁶⁾ 『한국역대문집총서 35』의 영인본은 ③과 같은 판목으로 찍은 5권 3책 완본을 영인한 것이다.

④는 목차가 대개 ②와 같다. 그러나 필사된 내용은 제1책(제1·2권)만인데 제1책 표지에는 ‘쑤’로 표시되어, 원래 부분만을 필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②와 비교하면 영본인 셈이다.

⑤는 목차도 권4가 門人錄으로 끝나고, ①의 내용과 대개 같으나 ①에 수록된 안향의 글 중 新增으로 표시된 『侍從忠宣王如元時感吟』을 비롯한 일부 글들이 누락되어 있어, ①보다 앞선 刊本の 필사본으로 보인다.

『洪崖先生遺藁』는 洪侃(?-1266-1304)의 詩文을 모아 조선시대에 편집되어 17세기에 중간된 책이며,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중간 목판본과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古 3447-6: 木版本, 1冊(24張)
- ② 古 3447-6A: 筆寫本, 1冊(41張)

②는 ①과 같은 중간본을 필사한 것으로 끝에 附錄으로 水谷碑文, 臨河設奠完議 蒼巖亭事蹟, 祭需式例 등 18세기 중엽 홍애의 후손인 문중의 기록을 첨부하였다. 『한국문집총간 2』와 『한국역대문집총서 11』은 모두 ①을 저본으로 영인한 것이다. 『고려명현집 5』의 영인본은 ①과 같은 중간본을 영인한 것으로 판형은 동일하나 장서인으로 보아 다른 책으로 영인한 것이다.

『益齋集』, 『益齋亂藁』, 『櫟翁稗說』은 李齊賢(1287~1367)의 저술들로 『익재집』은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함께 묶은 것인 경우도 있고, 『익재난고』만으로 된 책인 경우도 있다. 규장각에는 이러한 이제현의 저술들이 여러 질 소장되어 있는바,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규장각에 소장된 이제현의 저술들은 모두 조선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판본들이고, 이제현의 문집은 세종의 어명에 의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익재집』으로 간행될 때부터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합본한 것이었다. 그 후 『익재집』은 여러 차례 중간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고 있었다. 『익재집』의 판본별 내용 구성의 변화과정을 중간서들에 의거하여 크게 분류하고, 아울러 규장각 소장본의 판각 字體를 함께

6) 20세기에 편찬된 5권 3책으로 구성된 『회헌선생실기』의 완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國(한-57-가253): 國(한-57-가27): 國(東谷古2511-傳45-11) 등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國편B9I-204 등이 알려져 있다.

〈표 4〉 규장각 소장 『益齋集』

	청구기호	서명	책-권		반광곽	
①	奎3657	益齋集	1책: 序(李穡), 益齋亂藁 권1~4 2책: 권5~8 3책: 권9상-하, 10	목판	173 × 222	제4책 缺
②	古 3428-295	益齋集	同上	목판	同上	同上, ①과 같은 판목
③	古 3428-837	益齋集	天책: 重刊序(1693, 任相元), 序(李穡), 益齋亂藁 권1·2, 重刊識, 권3·4·5, 跋 地책: 권6·7·8·10 人책: 권9상·하, 拾遺(詩文 8편), 年譜	목판	170 × 208	제4책 缺
④	奎4259	益齋亂藁 (益齋集)	1책: 중간서(1693), 서(이색), 益齋亂 藁권1, 권2, 중간지(계유년, 2권끝), 권3, 4, 5 2책: 권6, 7, 8 3책: 권9상-하, 10 4책: 『翁稗說 前集1, 2 후집1, 2: 습유 (8편), 연보, 이제현묘지, 跋	목판	164 × 206	4책 원본 ⑤와 동일판목 에 일부 첨가
⑤	가람古 819.4- Y58i	益齋集	1책: 서(이색), 익재난고 권1, 권2, 권3, 4 2책: 권5, 6, 7, 8 3책: 권9상-하, 10, 跋 4책: 연보, 중간서, 跋, 묘지명, 습유(5편) 樸翁稗說전집1, 2 후집1, 2	목판	170 × 206	4책 원본
⑥	一蓑古 819.4- Y58ij	益齋集	元책: 서(이색), 중간서(임상원), 익재 난고 권1, 권2, 중간지, 권3, 4 후책: 권5, 6, 7, 8 利책: 권9상-하, 10, 跋(유성룡) 貞책: 연보(4장)역옹패설 前集 1, 2후집 1, 2; 이제현묘지, 습유(5편) 계유중간발문(김민)	목판	164 × 206	4책 원본 ⑤, ⑥은 동일 판목
⑦	一蓑古 819.4-Y58i	益齋集	1책: 익재난고 권4, 5, 6 영본	목판	168× 223	①, ②와 같은 판목
⑧	古0320	樸翁稗說	전집 1, 2 후집 1, 2, 습유: 5편/再思堂散藁/묘지명	목판	164× 216	⑤와 같은 판목
⑨	古複0320	樸翁稗說	樸翁稗說 목록, 전집1, 2, 후집1, 2, 습유 (5편)/再思堂散藁/묘지명	목판	170× 220	①, ②와 동류
⑩	一蓑古 818.4-58y	樸翁稗說	전집1, 2 후집1, 2	목판	170× 208	⑤에 補刻
⑪	奎4578	樸翁稗說	전 1, 2 후1, 2/습유(5편)/묘지	목판	173× 224	
⑫	奎6965	樸翁稗說	전집1, 2 후집1, 2/습유(5편)/묘지명	필사		
⑬	奎중 5969- 248-399의 제284-286책	益齋集	284: 이색서문, 권1-3 285: 4-8 286: 9상, 하, 10, 습유(5편)	목판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합본하여 1432년에 간행한 판본.

나) 위 가)에 『孝行錄』을 첨가한 1600년 후손 李時發 중간본. 拾遺(시문 5편)와 묘지명도 첨가되었던 것으로 보임.

다) 『효행록』을 제외한 나)의 내용에 『再思堂散藁』(이제현의 7대손 李穰의 글과 행록)를 附錄으로 첨가한 李寅燁의 1693년 중간본. 연보도 첨가되었던 것으로 보임.

라) 다)의 내용에서 『재사당산고』를 제외한 중간본. 朝鮮時代末의 판본.

마) 라)의 내용에 습유를 시문 8편으로 확대하고, 연보도 일부 첨가한 조선시대말의 판본.

위의 중간 과정들을 보면, 『익재집』의 내용에 계속 부분적인 첨가가 이루어졌다. 규장각 소장본들 역시 이 후대의 중간과정에서 첨가된 것들이 조금씩 다른 상태임을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은 간행 연도의 기록이 불충분한 규장각 판본의 간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익재집』에서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이 판심의 책명 표시나 卷 番號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지 않아 분리해 놓아도 별개의 두 가지 책처럼 보일 수 있듯이, 후대에 첨가된 것들도 拾遺·墓誌·年譜 등이 별도의 단위들로 되어 있고, 帳 번호도 나뉘어 있어, 이 중 일부가 누락되어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익재집』의 다른 부분인 책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간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지적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제 『익재집』의 내용 구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위 ①~⑬에는 가)에 해당하는 판본은 없으며, 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것만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 중에서 나)의 구성을 가진 것은 원래 『익재집』의 『역옹패설』부분이었던 ⑩과 ⑫가 있다. 다)와 같은 구성을 갖는 것은 ⑧과 ⑨가 있는데,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①·②·⑦도 본래 이 계열의 판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의 경우로 분류될 판본은 ⑤와 ⑥이다. 마)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④가 있고, 검토를 요하지만 ③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나)에 해당하는 판본에는 원래 『孝行錄』이 포함되어었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萬曆 庚子(1600년) 月城重刊”이라는 刊記가 인쇄된 판본(奎 1510)이 소장되어 있다. 1600년 당시 『익재집』이 같은 경주지역에서 간행되며, 별도의 『효행록』을 판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효행록』 규장각본은 바로 본래 『익재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奎 1510>은 通卷 1책으로 되어 있어, 이시발의 서문에 『효행록』 1권을 포함했다고 한 것과는 부합한다. ⑩ 『역옹패설』은 拾遺(시문 5편)와 묘지명이 합본되어 있어, 『역옹패설』만으로 간행된 책이 아님은 물론, 1600년 간본과 같은 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⑪은 판각된 미려한 자체가 <奎 1510>과 같으며, 둘 모두 ‘春坊藏’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나) 계열의 『익재난

고』 부분은 현재는 없다. 현재 남아 있는 판본들에서 보는 바처럼 『익재집』은 이들 세 부분이 각기 별도의 책들로 제본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부분만을 보다가 나뉘어 보관되게 되면 현재 규장각본에서 그렇듯이 각기 별도의 책인 것처럼 여기기 쉽다.

『효행록』은 權溥 등의 저술에 이제현이 序와 贊을 붙인 책으로 이제현 개인의 저술이 아니므로 나) 이후의 판본에서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에 마)의 중간본에서 拾遺 부분을 확대할 때 『孝行錄序』가 포함되었다.

㉒는 필사본인데 구성이 ㉑ 같은 나) 계열의 판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㉓는 光緒年間(1875~1908)에 淸나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粵雅堂叢書 속에 들어 있는 『익재집』으로, 묘지명은 빠졌으나 습유가 시문 5편인 나) 계열 판본을 대본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다) 『再思堂散藁』가 들어간 판본은 우선 ㉘와 ㉙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판목으로 간행된 것이다. 두 판본은 판각된 자체가 크게 다르다. ㉙가 미려한 자체로 판각된 반면, ㉘은 굵고 좀더 거칠게 판각된 字體로서 라) 이후의 자체들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면 다)는 다시 ㉙와 같은 다-1)계열 판본과 ㉘와 같은 다-2)계열 판본으로 나뉘어진다.

다-1) 계열인 ㉙는 ㉑·㉒와 같은 판심, 2중테 광곽, 글자의 균형잡힌 美麗한 판각서체가 같다. 특히 판목의 상태가 좋아 ㉑와 같은 판목상태를 보인다. 『역옹패설』 뒤에 습유와 묘지명 등 다른 글들이 붙어 있어 원래 『역옹패설』만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㉑와 같은 판목으로 구성된 『익재집』의 제4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완본인 ㉔·㉕·㉖의 『역옹패설』 부분도 판심의 서명표시가 『익재집』으로 되어 있지 않고, 前一, 後一 등으로 표시된 것은 ㉙와 마찬가지로이다.

인쇄된 판목의 상태는 ㉑이 거의 완전한 반면, ㉒와 ㉗은 일부 자획이 탈락하고 글자가 마멸된 상태에서 찍은 것이다. 이러한 훼손은 ㉗이 특히 심하며, ㉙의 경우 판목의 상태는 ㉑에 준하는 양호한 상태이다.

㉙의 청구기호는 <古複 0320>으로 되어 있어 ㉘ <古 0320>의 複本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서로 다른 판본이며, ㉘보다 앞선 시기에 미려하고 정교하게 刻字된 善本이다.

『익재난고』 부분만인 ㉑·㉒·㉗은 같은 판목으로 인쇄한 것이다. ㉗은 零本이 분명하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㉑·㉒의 경우 기존 목록집에 완본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처음부터 『櫟翁稗說』을 포함시키지 않은 『익재집』의 완본으로 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益齋亂藁』 자체만으로는 완본이라 볼 수도 있으나, 조판된 『익재집』으로서는 부분만인 영본이다. 완본으로서의 익재집은 ㉔·㉕·㉖을 볼 수 있다. 이들 완본으로서의 『익재집』에서도 『익재난고』를 수록한 제1~3책과 『역옹패설』을 수록한 제4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도 분리되면 쉽게 ㉑·㉒·㉓와 같은 『익재난고』만의 『익재집』과 ㉘~㉚와 같은 『역옹패설』만의 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㉑·㉒·㉓와 ㉘~㉚는 모두 두 부분으로 책이 나뉘어져 내려온 판본들로 보인다.

①·②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첫째, 중간서나 발문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익재난고』만으로 되어 있는 책을 내면서 판심의 서명을 『익재집』으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같은 판각상태를 보이는 ⑨와 같은 『역옹패설』이 있다는 것이다. ①이나 ②는 ⑨를 제4책으로 첨가한다면 『익재집』의 완본이 된다고 생각된다.

다-1)의 보다 상태가 좋은 판본은 『한국문집총간 2』에 영인된 海州에서 간행한 판본(고대 중앙도서관 D1-A401A)이 있다. 이책의 서를 포함한 『익재난고』에 발(유성룡), 묘지명, 습유(5편), 年譜, 『재사당산고』, 발(이시발), 발(이인엽) 등이 첨부된 판본이다. 이 판본 역시 ①·② 등처럼 본래 『익재집』으로 간행된 것 중 『익재난고』만이 남은 영본이다. 이 판본을 보면 ⑨나 ⑧에서 보이지 않는 연보가 첨가되고 있는데, ⑨나 ⑧이 포함된 『익재집』에도 본래 연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1) 계열 판본들은 후대로 가면서 판목이 마손되면서 새로이 복각을 하며 파손된 판목을 교체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점차 자체가 굵고 거칠어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각된 판목이 주류를 이루게 된 단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의 전혀 다른 판본이 되게 되었다.

다-2) 계열 판본이나 라) 계열 판본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2)의 내용구성은 ⑧에서 볼 수 있는바,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 『재사당산고』는 이제현의 7대손 李의 글과 행록이어서 얼마 후에는 『익재집』에서 빼어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1)과는 판목도 다르고 다-2)와는 내용도 다른 라) 계열의 판본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에 들어가는 판본은 우선 『익재집』의 완본인 ⑤와 ⑥을 들 수 있다. 이 두 판본은 판목상태가 동일했던 때에 인쇄된 것으로 발문, 연보, 중간서, 묘지 등의 순서가 다르게 제본되어 있을 뿐이다. 『역옹패설』만인 ⑧은 잉크의 농담 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손된 판목의 교체가 덜 되어 ⑤보다 거칠게 인쇄되어 있지만 ⑤와 거의 같은 판목을 사용한 것이 두 판본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再思堂散藁』를 제외한 라) 계열 판본의 성립과정을 이에서 찾을 수 있다.

마) 계열의 완본으로는 ④가 있다. ③도 『익재난고』 부분만 남은 마) 계열의 판본이다. ③의 경우, 제3책의 끝에 습유와 연보가 붙어 있어 이 자체로 『익재집』의 완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판본은 어떤 연유로 책의 차례가 바뀌어 제본된 것이다. 重刊識가 권2의 뒤에 붙어 있고, 跋은 권5의 뒤에 들어가 있고, 권10이 卷9上의 앞으로 가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습유와 연보도 보통 제4책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순서의 바뀔에 따라 卷9下의 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은 습유가 시문 8편인 것을 보면, 마) 계열의 판본이다.

③·④는 ⑤·⑥에 사용된 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판목의 상태가 나빠져 인쇄상태는 전반적으로 ⑤·⑥보다 매우 나쁘다. ④는 후대에 인쇄되어 종이 상태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나, 중간본의 판목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다시 復刻 형태로 補刻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권5

의 말미에서처럼 손상된 일부 글자는 자체가 다르게 판각된 것이 발견된다.

③·④는 연보와 습유의 내용이 ⑤·⑥보다 약간 보충되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며, 인쇄당시의 판목상태는 ⑤·⑥이 훨씬 좋다.

⑩은 습유, 연보 등이 없이 『역옹패설』 부분만이 남은 판본이다. 그러나 ⑤와 같은 판목을 기본으로 하여 훼손이 심한 일부 판목을 새로 補刻해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④쪽에 가깝고, 그러한 면에서 마) 계열의 판본으로 분류된다.

규장각에는 이외에도 『喜聞齋隨錄』(古 3428-87)이라는 서명으로 두 책으로 된 필사본이 있는데, 『익재집』에서 일부 시문만을 발췌한 필사본이다.

『익재집』의 영인본으로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려명현집2』의 영인본의 저본은 ④와 같은 종류의 판본이며, 완본이다. 좀더 좋은 선본을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이보다 후에 간행된 영인본은 『익재집』에서 『익재난고』만 남은 것을 완본으로 여기고 간행하고 있다. 『한국역대문집총서 13』의 영인본은 ⑤와 같은 계열의 목판본에서 『益齋亂藁』 부분만이 남은 것을 영인한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2』의 영인본은 ①보다도 자체가 미려하고 보존상태가 좋은 海州에서 간행한 판본의 『익재난고』(고대 중앙도서관 D1-A401A)를 영인한 것이다. 이들 영인본은 『역옹패설』이 『익재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익재집』은 현재 제대로 선본을 선정할 완본으로 된 영인본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규장각 소장 선본인 ①과 ⑨, 특히 ⑨와 같은 선본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拙藁千百』은 崔灌(1287~1340)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필사본 한 책이 소장되어 있다(가람古 819.4-C453j, 2卷 1冊). 『한국문집총간3』과 『고려명현집2』의 영인본은 일본 尊經閣藏本을 1930년에 영인한 책(국립중앙도서관 한44-가86)을 다시 영인한 것이다. 이 필사본은 두 영인본과 동일한 내용에 帳과 行도 같게 필사하였다. 다만 권2 끝의 장 번호의 37·38장은 목판 영인본의 誤字를 바로 잡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해의 다른 저술인 『東人之文四六』은 규장각 고서 중에는 소장본이 없다.

『謹齋先生集』은 安軸(1282~1348)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一藁古 819.4-Anlgb: 木版本, 1冊 권1·2
- ② 一藁古 819.4-Anlga: 木版本, 1冊 권3, 增補
- ※ ①·②는 합하여 본래 한 질이었던 完本임
- ③ 奎 3135: 寫本, 3卷 2冊

- ④ 가람古 819.4-Anlg: 木版本, 4卷 2冊
 ⑤ 一蓑古 819.4-Anlg: 寫本, 2卷 1冊(零本)

위에서 ①·②·③은 英祖十六年 庚申 金在魯의 서문과 後孫 慶運의 발문이 있는 1740년에 3차로 중간된 판본이다. 목판본인 ①과 ②는 분리되어 별도의 零本처럼 청구기호가 붙여져 있으나, 원래는 함께 한 질을 이루었던 책이다. 둘 모두는 우선 松菴, 順興世家, 安琦甚印 등의 같은 장서인이 찍혀 있다. 그리고 표지, 제본 끈, 본문 종이 지질, 서체, 판심 등이 동일하다. ①은 서문, 권1, 권2, ②는 권3과 增補, 발문, 간기 등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는 1740년 간본의 완본이다. 필사본인 ③은 내용도 ①·②와 같은 1740년 판각된 목판본과 일치한다.

④는 1910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①·②와 같은 1740년 간행본과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다. 우선 권 1 『關東瓦注』 앞에는 1740년 간본에 없던 李齊賢이 쓴 『關東瓦注序』가 들어가, 두 시기의 판본은 쉽게 구분이 된다.

⑤는 필사본으로 저본은 기본적으로 ①·②와 같은 1740년 간행본이나, 그 내용에 일부 첨가를 한 것이다. 이제현이 쓴 『관동와주서』는 권1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권1 앞에 첨가되어 있고, 권2 『請同色目表』 뒤에는 '酷熱' 등의 시문이 增補되어 있다. 여기서 증보된 내용과 편차는 ④의 1910년 본과도 다르다. 이는 필사자가 1740년의 내용에 증보한 것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쓴 증보된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1740년 간본이 나온 후 1910년 본이 만들어지기 전의 중간 과정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1910년 간본은 世系圖로 시작되나 1740년 간본에는 1910년본에 없는 서문들이 첫머리에 나온다. 1740년에 쓴 外裔孫 金在魯의 序, 이제현의 序, 至順 신미년에 쓴 최해의 序, 至正 24년에 쓴 鄭良生の 序가 그것이다. 1740년 간본은 2책 끝 발문 뒤의 附記에 의하면 1740년 겨울 제주에서 판목을 세겨 나주에 옮겨 보관하였다. 1740년본의 구성은 1책(序, 권1 關東瓦注, 권2 보유), 2책(권3 증보 附: 三先生世稿: 文間公 安宗源, 靖肅公 安純, 文肅公 安崇善, 跋文)으로 되어 있다.

詩나 文의 제목이나 세주가 1910년본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 있다. 권1의 경우 필사본의 '次韻' 이라고만 표시한 것을 1910년본에서 '詠梅' 라 제목을 붙이고, 사본에서는 '人蓼' 을 제목으로 하고 "蓼貢太多故云" 이라 세주를 붙인 것이, 1910년본에서는 '蓼歎' 이라 제목을 붙이고 "蓼貢多弊故云" 이라 세주를 붙였고, 사본의 '詠鷹' 이라는 제목에 "和州鷹坊人羅捕示余" 라 세주를 붙인 것은 1910년본에서는 제목이 탈락하고 세주를 제목처럼 붙이는 등 조금씩 다른 내용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또한 본래 권1이 『關東瓦注』로 되어 있는바, 1740년 간본에는 각 지역에서 지은 記들을 詩와 함께 여행한 순서대로 수록하였는데, 1910년 본에서는 詩만을 앞에 추려 모으고 記는

뒤로 몰아 수록하여 1권을 구성하였다. 1740년 본이 원래의 『관동와주』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권2의 안축이 찬한 안우기의 묘지명은 끝부분의 연월과 안축 찬을 표시한 부분이 1740년 본에만 있다. 1740년 본이 보다 원형임이 분명하다.

1740년 간본의 권3이 끝난 뒤에 附錄된 『三先生世藁』는 1910년본에서는 탈락되고, 1910년본 권4는 안축에 대해 다른 유자들이 지은 글이나 조선시대의 祭享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국문집총간 2』, 『고려명현집 2』의 영인본은 모두 1910년 간행 목판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규장각에는 1740년 간본의 零本이 아닌, 보존 상태가 좋은 完本이 존재한다. 그리고 『관동와주』 등의 자료는 1740년본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판본을 활용한 영인본이나 교감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鐵城聯芳集』은 杏村 李岳(1297~1364)과 그 아들 李岡(1333~1368), 손자 李原(1368~1430) 등의 시문 및 행적에 대한 글을 모아 놓은 책으로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7354; 木版本, 1冊
- ② 古 3422-29; 木版本, 3卷3冊
- ③ 一蓑古 819.4-Y67c; 木版本, 1冊 1卷(零本)
- ④ 一蓑古 819.51-Y58m; 木版本, 1804년, 1冊(零本, 권3만 有)

①은 『철성연방집』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①의 내용이나 徐居正의 서문에 의하면 15세기에 처음 편찬될 때는 이강과 이원의 시문과 행적을 모아 간행되었다.

②는 ①의 내용에 행촌 이암과 후손 이주의 유문을 더해 1804년에 중간된 것이다. 이 판본에는 권1에 행촌과 평재의 시문과 행적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송설체로 유명한 이암의 글씨들을 실었다.

③과 ④는 ②와 동일 판목으로 인쇄된 판본들이나, 그 일부만이 남은 영본들이다. ③은 3책중 제1책에 해당하는 영본이며, ④는 3책중 제3책에 해당하는 영본이다.

이암의 글과 사적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1960년에 『행촌선생실기』라는 제목으로 2권 1책이 간행된 바 있다(이상의 편, 석인판, 국편 B9I-195).

『稼亭先生文集』은 李穀(1298~1351)의 詩文과 당대의 명사들이 이곡에게 지어준 글 등을 모은 책으로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6763; 木版本, 20卷 3冊

- ② 奎 5028: 木版本, 20卷 4冊
- ③ 奎 5029: 木版本, 20卷 4冊
- ④ 一蓑古 819.4-Y55ga: 木版本, 20卷 4冊
- ⑤ 一蓑古 819.4-Y55g: 木版本, 2冊(零本)

『稼亭集』은 서문이나 발문에 따르면, 판각은 1364년(朴尙衷, 錦山), 1422년(柳思訥), 1635년(李基祚, 大邱), 1658년(尹泰淵, 完山)의 네 차례 이루어졌다. 이 중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1635년 간본과 1658년 간본이다.

①·②·③은 모두 1635년의 판각본으로 연보 등이 제본되어 있는 순서나, 제본된 책수가 다를 뿐 동일한 판각상태를 보여준다. 이 1635년 간본은 『가정집』이 壬亂의 피해를 본 후 문집 내용의 일부는 복구를 못하고 누락된 상태로 간행된 것이다. ①·②·③은 권2의 3~9장, 권3의 1·2장 등의 내용이 결실된 상태로 제본되어 있다.

이 1635년 간본의 글제목은 1658년 간본과 비교하면 조금씩 다르게 붙여진 것들이 있고, 8권부터는 목차 구성의 차례도 많이 다르다.

④·⑤는 1658년의 간본이다. 이 판본은 尹泰淵이 『가정집』의 완본을 발견하여 完山에서 판각한 것이다. 따라서 1635년 간본에 누락되어 있던 내용들이 모두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58년 간본이 영인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고려명현집 3』과 『한국문집총간 3』의 영인본은 모두 1658년 간본의 판목으로 인쇄된 것을 영인한 것이다. 이 중 『한국문집총간 3』 영인본의 저본(연세대 중앙도서관 811.96-이곡-가-판)은 판목의 상태가 좀더 깨끗했던 때의 것으로 인쇄 상태가 매우 좋다. 이 善本에 비하면 ④와 ⑤는 판목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인쇄된 것이다. ④와 ⑤를 비교하면, ④가 완본인데 대하여 ⑤는 영본이지만 판목의 상태가 덜 노후화된 상태에서 인쇄된 것이다. 영본인 ⑤에 남아 있는 내용은 1책이 연보, 목록, 권1~4이고, 2책은 권14~20, 잡록, 발문들로 되어 있다.

『華海師全』은 『高麗史』나 14·15세기의 문헌에 보이지 않는 申賢(1298~1377)이라는 인물의 언행 등을 元天錫·范世東이 모아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규장각에는 두 가지 책이 전한다.

- ① 奎 12393: 筆寫本, 7卷 4冊
- ② 一蓑古 920.051-B45h: 목활자본, 1冊 卷 6·7 (零本)

『화해사전』은 필사본으로 유포되어 있던 것을 일부 교정을 하여 1857년에 목활자로 간행하였다고 한다. ①은 그러한 필사본으로 보이며, ②는 1857년 간본이다.

신현이 원·명·고려에 걸친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의 중요한 관계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술된 책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의 행적이 당시의 문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책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景濂亭集』은 卓光茂(?-1331-1392-?)의 詩文을 후손들이 여러 문헌에서 수집하여 1850년에 활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한 질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① 奎 3637; 5卷 2冊 零本

위 책은 목록집 등에 완본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1책의 序의 5~8帳, 경엄정집목록, 권1의 5~8장이 결락되어 있는 영본이다.

탁광무의 글들은 ①의 판본이 간행되기 앞서, 1789년에 『光山卓氏世稿』라는 명칭의 책 속에 수습되어 간행되었다. 1788년에 李光靖이 쓴 서문에 의하면 이 책에는 탁광무와 卓愼(竹亭)의 글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이 판본은 없다.

1827년에도 『光山卓氏世稿』는 上卷을 탁광무의 글을 모은 『景濂亭逸稿』, 下卷은 후손 卓愼의 글을 모은 『竹亭逸稿』라 하여 2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다음의 책이 1827년 간본이다.

② 奎 7085; 2卷 1冊

위 ②의 상·하 양권의 내용은 1788년 간본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이며, 券下의 뒤에 부록한 事實, 榜目, 世系, 記事 등이 새로이 추록된 것이라 보인다.

1827년의 간본을 낸 지 얼마 후 조선시대 후손 2인의 글(『竹林先生逸稿』 卓中, 『松庵逸詩』 卓順昌)을 더하여, 역시 『光山卓氏世稿』라는 서명의 책을 간행하였다. 규장각 소장본 중의 다음의 책이 그것이다.

③ 古 3441-42; 2卷, 續集2卷, 合2冊

위 ③의 제1책 『광산탁씨세고』 권상·하의 내용은 ②와 같고, 다만 ②의 권하 다음에 부록된 내용은 보다 많이 증보되었다. ③의 제2책인 『광산세고속편』에는 탁광무와 탁신의 글들을 새로이 더 추가하여 발췌 수록하고, 『竹林先生逸稿』(卓中, 朝鮮)와 『松庵逸詩』(卓順昌, 朝鮮)를 더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②·③에서와 달리, 가장 늦게 편간된 ①에서는 탁광무의 문집을 서명으로 하고, 그 후손의 문집인 『竹亭集』(卓愼)과 『竹林亭集』(卓中) 등은 부록으로 편제하였다. 특히 ①에서는 ③의 속집에서 추가된 탁광무의 글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권1·2에 묶어 간행한 것이다.

규장각에는 그 외에도 『光山卓氏世蹟書』라는 이름으로 근대에 필사된 책이 있다(奎

11974, 필사 1책 20장).

『한국문집총간 6』과 『고려명현집 5』의 영인본은 ①과 같은 1850년에 간행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고, 그 중 탁광무 후손들의 문집들은 제외하고 영인하였다.

『淡庵先生逸集』은 白文寶(1303~1374)의 詩文을 조선시대말에 후손들이 여러 典籍에서 모아 간행한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古 3428-737)은 1900년경에 初刊된 木版本 1冊 3卷으로 되어 있으며, 제3권은 附錄이다.

『한국문집총간 3』의 영인본은 이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권1·2와 世系, 跋만을 영인한 것이다. 『고려명현집 5』와 『한국역대문집총서26』의 영인본의 저본도 같은 판목으로 인쇄된 판본이다.

『霽亭先生文集』은 李達衷(1309~1384)의 시문을 모아 놓은 책이다. 15세기 전반에 尹淮가 쓴 발문에 의하면, 전해오던 이달충의 유문들을 이달충의 손자 李寧誥이 초간본을 春川에서 간행하였다. 그 후 1836년과 1918년(戊午)에도 다시 重刊된 바 있다. 규장각 소장본 중 다음 두 질의 책은 1918년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① 古 819.4-Y52j: 4卷 1冊

② 古 819.4-Y53j2: 4卷 1冊

위 ①·②는 판목의 상태도 동일했을 때에 인쇄된 동일한 판본들이다. 위 두 판본보다 뒤에 석판본으로 간행된 판본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③ 古 819.4-Y53j: 石版本, 근대

위 ③에는 권1 말미의 보유에 『從叔益齋先生輓』 등 2편의 글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영인본 중에 『한국문집총간 3』의 영인본은 1836년에 부석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고려대 중앙도서관 晚松文庫, D1-A284B). 『한국역대문집총서 34』의 영인본의 저본(소장처를 밝히지 않음)은 만송문고본과 다른 1836년 간행 목판본으로 인쇄된 것이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본은 1836년의 목판본을 저본으로 했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그보다 후대의 판본이다.

『槿隱先生逸稿』는 田祿生(1318~1375)의 詩文과 行蹟 등에 대한 여러 문헌의 기록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1738년에 후손 田萬英에 의해 初刊되었다. 규장각 소장본 중 다음의 6권 2책으로 된 목판본이 이 초간본이다.

① 奎 3136: 木版本, 6卷 2冊

이 판본에는 제6권의 끝에 田祖生(耕隱)을 비롯한 일가 4명의 遺事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전록생의 문집은 1890년에는 두 아우인 田貴生과 田祖生의 시문 및 행적 등을 함께 묶어 『三隱合稿』라는 서명으로 4권 2책의 목활자본이 간행되었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이 목활자본도 소장되어 있다.

② 奎 6148: 木活字本, 4卷 2冊

위 ②에서는 전록생의 시에 次韻한 李穡 등의 시를 빼고, 전록생의 시만을 간추리는 등으로 전록생의 유문집도 편차가 달라졌다.

유통되고 있는 영인본을 보면, 『한국문집총간 3』, 『한국역대문집총서 12』, 『고려명현집 4』의 영인 저본은 모두 규장각 소장본인 ①인데, 『고려명현집 4』를 제외한 나머지 둘에서는 附錄인 耕隱 등에 대한 기록은 제외하였다.

『遁村雜詠』은 李集(1327~1387)의 詩와 역대 명인들이 둔촌과 관련하여 남긴 글들을 모은 것이다. 1410년 공주에서 초간된 이후 여러 차례 중간이 되며 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86년의 3번째 간행 때는 종전의 詩作의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던 문집의 체제를 시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즉 시를 七言과 五言으로 나누고 다시 絶句·古詩·四韻律로 분류 간행하여 종전의 이들 시들이 섞여 있던 체제를 크게 바꾸었다. 이는 시를 장르별로 감상하는 데는 편리할 수 있겠으나 시를 시간적 순서와 함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3간본 이후 판본의 한계이다. 이 3간본에 다시 1846년에 약간의 補編을 더하고, 이집의 두 아들의 遺稿 약간을 덧붙여 4간본을 간행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1책 완본(奎 7131)은 4간본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표지서명이 '遁村先生遺稿'로 묵서되어 있으나, 목판에 새겨진 '遁村雜詠'이 원 제명이라 할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3』의 영인 저본은 규장각 소장본이며, 『한국역대문집총서 12』의 영인저본도 장서인으로 보아 규장각 소장본이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본은 규장각본보다 후에 간행된 1916년의 중간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牧隱集』은 李穡(1328~1396)의 詩文 등을 모은 책으로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古 3428-871: 木版本, 2冊(零本)
- ② 奎 4976: 木版本, 55卷, 目錄, 24冊
- ③ 奎 5771: 木版本, 55卷, 目錄, 24冊
- ④ 奎 4277: 木版本, 55卷, 目錄, 25冊
- ⑤ 奎 4276: 木版本, 55卷, 目錄, 24冊
- ⑥ 一叢古 819.4-Y63m: 木版本, 2冊(零本)
- ⑦ 一叢古 819.4-Y63me: 木版本, 1冊(零本)

이색의 글들은 1404년에 아들 李種善이 55권의 『목은집』을 간행한 이래로 몇 차례 편찬되어 간행되었다. 1484년에는 후손 李季甸이 12권으로 된 『牧隱詩精選』을 全州에서 간행하였고, 1583년에는 후손 李增이 『文藁』 18권을 洪州에서 간행하였다. 그 뒤 壬亂의 피해를 본 후에는 『목은집』은 구하기 어렵게 되어 후손 李德洙의 노력으로 1626년에 초간본을 바탕으로 重刊되게 되었고, 그 뒤 1686년에 대구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규장각 소장본 중에는 2冊 零本인 ①이 1404년의 初刊本, 좀더 정확히 말하면 磨損이 많은 초간본 판목을 이용한 『목은집』으로 추정되며, ②~⑦은 모두 1626년 중간본이다.

初刊本으로 추정되는 ①은 판각된 글자체가 나머지와 다르고, 반광곽의 크기도 가로, 세로 115×180mm로 1626년 중간본들의 143×194mm와 확실히 차이가 난다. 또한 ①에는 쏘卷에 걸쳐 글자, 행의 결락을 판목의 해당부분을 메워 검게 표시하였고, 면의 결락은 공백의 백지를 채워넣어 표시하였다. 영본인 ①은 표지 서명이 『목은집』으로 되어 있고, 1冊은 牧隱詩藁 권22(33帳)·권23(34帳)이고, 2冊은 목은시고 권24(34帳)·권25(32帳)로 되어 있다.

①에서 결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②~⑦ 중간본들에서도 결락되어 있는데, 중간본들에서는 새로이 판각을 하면서 결락된 부분을 대체로 공란으로 남겨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중간본에서 문장 중에 글자가 빠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입수한 『목은집』이 대체로 ①과 같은 초간 판목의 후대 인쇄본이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②~⑦에서 공란으로 남겨진 부분들은 문장 중간에서는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 문장의 끝이나 제목의 앞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내용상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상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판별이 매우 어렵다.

특히 ②~⑦에서는 결락된 부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이어 붙인 경우들도 있어, 주의할 요한다. 예를 들면 ①의 제25권 제24·25帳은 광곽표시만 있는 공백면으로 되어 있으나, ②~⑦에서는 이 두 帳을 건너 뛰어 제24장 첫머리에 1행과 2행으로 이어 붙였다. 다시 말하자면, ①에서의 제23장의 끝에다 제26장의 앞머리를 이어 붙여 조판한 것이다.

②~⑦에서 ③·⑥·⑦은 부분만 남은 영본이다. 이 중 ③은 기존 목록이나 해제에서 남

은 부분의 소개가 잘못되고 있어, 바로잡아 정리해 둔다. ③〈奎 5771〉은 1책(목은시고목록 상·중·하), 2책(목은선생문집서(權近, 李詹), 연보, 신도비, 행장, 祭文(教書), 목은집부록; 목은시정선서(서거정) 등, 목은시고(권1·2), 3책(권3~5), 4책(권6~8), 5책(권12~14), 6책(권15~17), 7책(권21~23), 8책(권24~26), 9책(권30~32), 10책(권33~35), 11책(목은문고목록, 문고 권1~5), 12책(권11~15), 13책(권16~20, 발(이덕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목은집』의 영인본들은 모두 ②~⑦과 같은 1626년의 중간본들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3·4·5』의 영인본은 규장각 소장본인 ④를 저본으로 한 것인데, 목은시고 권22의 제33장은 결락되어 있어, ⑤의 해당부분으로 채워 넣었다고 한다. 『고려명현집 3』의 영인본도 장서인으로 보아 ④를 저본으로 한 것인데, 시고 권22의 제33장은 결락을 보충하지 않았다. 『한국역대문집총서15~20』의 영인본도 같은 계열의 중간본이다.

규장각에는 1484년에 간행된 『牧隱詩精選』도 소장되어 있다(古 3447-21). 木版本, 12卷 6冊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후손 이계전이 간행한 판본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는 본문만이 남은 책인데, 徐居正이 지은 서문은 『목은집』의 부록에서 찾아 보충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표지에 ‘李牧隱穡 金佔畢宗直. 崔簡易岵. 李月沙廷龜’라 쓰인 필사본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책의 글로는 목은문고에 들어 있는 일부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가람古 810.82-Y63g: 寫本, 1冊 53張).

『耘谷行錄』은 元天錫(1330~?)이 1351년에서 1394년까지에 있었던 일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시로 읊은 『耘谷詩史』와 조선후기에 후손들이 그와 관련된 『事蹟錄』을 덧붙인 책이다. 규장각에는 『耘谷詩史』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소장되어 있다.

① 古 3428-359: 木活字本, 5卷3冊

② 古 3428-359A: 筆寫本, 6卷, 附錄, 合4冊

①은 1858년에 간행된 목활자본이다. 본래 집안에 전해오던 稿本을 바탕으로 한 『耘谷詩史』가 주된 내용이나, 여기에 후손들이 『사적록』을 붙이고, 책명을 『운곡행록』이라 하였는데, 표지에는 『운곡시사』라고 墨書되어 있다. 본래의 고본 『운곡시사』는 조선왕조의 개창과 관련한 忌諱되는 사실들을 읊은 시가 후대의 편집과정에서 散削되었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원래의 『운곡시사』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①의 정확한 책명은 『운곡행록』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에 보급되고 있는 간본들도 대개 ①과 같은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6』의 영인본은 ①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명현집 5』는 저본의 소장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①과 같은

1858년 간본이다.

②는 필사본으로 『운곡시사』 부분은 卷次와 내용이 ①과 같고, 다만 조선시대 명사들의 운곡에 대한 기록 등을 수록한 부록 부분을 증보하여 부록 1권이 증가한 6권으로 되었다. 乙丑년(1865) 元容圭의 발문이 있는바, 증보는 이때에 된 것으로 보인다.

『潘陽二先生遺稿』(奎 3983)는 朴尙衷(1332~1375)과 후손 朴紹(1493~1534)의 詩文 및 그들에 대한 글들을 모아 놓은 6권 1책의 목판본으로 卷1~3의 『潘南先生遺稿』가 박상충의 문집에 해당한다. 권1은 박상충의 시문, 권2~3은 박상충의 신도비문·묘지명·행장 등을 비롯한 그와 관련된 글들로 구성되었다.

『松隱先生文集』은 朴翊(1332~1398)의 시문과 그에 대한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규장각에는 두 가지 간본과 한 가지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古 3428-286: 木版本, 4卷 1冊
- ② 古 3428-286A: 木活字, 4卷 1冊
- ③ 奎 12023: 稿本, 1冊(46張)

①은 집안에 내려오던 稿本을 1839년에 처음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②는 목활자본으로 내용은 ①과 같고, 序·跋에서도 차이가 없어 간행연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앞 표지에 ‘丁酉刊’으로 筆記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1897년에 간행된 간본으로 보인다.

③은 ①이나 ②를 옮겨 적은 필사본이 아니라, 내용이나 편차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별본이다. ①과 ②의 앞에 붙은 洪命周와 趙斗淳의 序 중에서 홍명주의 서만 들어 있고, 朴翊의 글들의 수록 순서도 다르고, 일부는 더 추가된 것들이 있다. 또한 송은의 네 아들의 유문들을 憂堂遺集(朴融, 1347~1424), 忍堂遺藁(朴昭, 1347~1426, 박용과 쌍둥이), 啞堂遺集(朴調, 1350~1431), 拙堂遺藁(朴聰, 1353~1439)의 유고 약간씩을 모아 부록으로 하였다.

현재 유통되는 영인본은 『한국문집총간 5』에 ①을 영인한 것이 있다. ③은 간행된 『송은집』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고본이다.

『柳巷先生詩集』은 韓脩(1333~1384)의 시를 모아 간행한 책으로, 규장각에는 다음의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3483: 木版本, 1冊

② 奎 5238: 木版本, 1冊

1602년 李浚謙이 쓴 識에 의하면, 錦山에서 간행된 始刊本은 글자가 너무 작아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壬亂을 거친후 절판이 되었는데, 1599년 호남에서 한 질을 얻어 중간본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①은 바로 이 1602년 중간본이다. ②는 ①과 동일 판본으로 판목의 마손 상태도 거의 동일한 때에 인쇄된 것이다. 다만, 오래된 판본들이라 종이가 부식되어 탈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두 판본에서 탈락된 부분이 각기 다르다.

『한국문집총간 5』의 영인 저본은 위 ①이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 저본은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으로 후손 在益의 서문과 목록 그리고 약간의 부록을 붙인 朝鮮末期의 목활자본이다. 『한국역대문집총서 33』의 영인 저본은 『고려명현집 4』와 같은 판본이다.

『圃隱先生集』은 鄭夢周(1337~1392)의 문집으로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기에 걸쳐 10차례 이상 간행되었는바, 규장각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포은집』의 판본에 대해 기존 목록집에서는 기본적인 서지사항이 잘못 소개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도 未詳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 ① 가람古貴 819.4-J464p: 木版本, 2卷 1冊
- ② 古 3447-97: 木版本, 2卷 1冊
- ③ 想白古貴 811.4-J464p: 木版本, 2卷 1冊
- ④ 古 3428-38: 木版本, 2卷 2冊
- ⑤ 奎 6220: 木版本, 6卷 2冊
- ⑥ 一蓑古 819.4-J464p: 木版本, 9卷 3冊
- ⑦ 奎 11563: 목판본, 卷4~9, 1冊, 零本 (9권 3책 중 제1~3권 결)
- ⑧ 奎 4721: 木版本, 4卷, 續3卷, 3冊
- ⑨ 奎 6342: 木版本, 4卷, 續3卷, 3冊
- ⑩ 古 819.4-J464Pa: 木版本, 4卷 續3卷 3冊
- ⑪ 古 819.4-J464Pb: 木版本, 4卷 2冊, 零本
- ⑫ 奎 3434: 木版本, 4卷, 續3卷, 合4冊
- ⑬ 奎 3435: 木版本, 4卷, 續3卷, 合4冊
- ⑭ 古 819.4-J464p: 木版本, 續3卷중 第1·2卷, 1冊, 零本
- ⑮ 古 819.4-J464Ps: 木版本, 續3卷, 1冊, 零本

위의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①·②·③으로 이들은 1533년에 新溪縣에서 정몽주의 현손 世臣이 간행한 목판본들이다. 세 판본은 표지에 서명을 『圃隱先生文集』(①), 『圃隱集』

②), 『圃隱詩藁』(③)로 墨書하였으나, 모두 동일 판목으로 찍은 같은 판본이며, 당시의 서문을 보면 『圃隱詩藁』가 초기 간행본의 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 모두 내용 차례는 年譜, 序(朴信), 行狀, 跋(鄭宗誠), 서(權採), 卷上, 卷下, 雜著로 구성되어 있다. 1533년본은 1409년 초판본 다음의 두 번째 간행본으로 알려져 있는바, 年譜는 1533년 본에서 첨가된 것이다.

셋 모두 판목상태가 거의 같았을 때에 인쇄한 것이나, 오래된 판본이라 종이가 삭아 결락되고, 일부 帳은 전체가 탈락되었는데, 탈락된 부분이 달라 서로 보충될 수 있다. 雜著 다음 가장 뒤에 붙인 간행연대를 알려주는 嘉靖 癸巳(1533) 柳溥의 跋은 ②에만 남아 있다. 셋 중에서는 ②가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善本이다.

이 1533년본에 수록된 일부 시문은 壬亂 후의 판본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어떤 동기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검토를 요하지만 후대의 판본들을 보충해줄 수 있다.

④부터는 모두 壬亂 후의 판본들이며, ④는 萬曆 36년(1603)에 7대손 鄭應聖이 黃州兵營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내용의 구성은 卷頭 첨가 詩文(3편), 연보, 行狀, 서(변계량, 박신, 하륜, 권채, 노수신), 권상, 권하, 잡저, 萬曆 36년 황주병영 刊記로 되어 있다. 권두에 첨가된 시문 3편은 宣祖代初의 開城刻本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④는 기본적으로 ①~③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⑤는 1659년에 奉化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내용구성은 서문(6편) 목록, 권1(詩), 권2(詩), 권3(雜著 8편, 습유 4편 跋, 簡牘 4편), 권4 연보, 권5 본전, 권6 行狀, 부록(跋- 유성룡, 정종성; 공민왕9년 방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판본은 ⑤보다 앞서 간행된 1584년에 柳成龍이 宣祖의 命을 받아 교정하여 改撰한 판본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글씨와 板刻 모두 단정하고 美麗한 판본이다.

영본인 ⑥과 완본인 ⑦은 같은 계열의 판본이다. ⑥과 ⑦의 책 끝의 刊記 丁巳年은 1677년이다. 1677년 간본은 永川에서 간행되었고, 9권으로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⑥은 권4부터 권9가 남아 있는 영본이지만, 9권으로 된 1677년 간본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⑥을 인쇄한 판목들은 한 차례 조성된 판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이 補刻해 채워 넣은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도 9권으로 분권되어, 그 내용은 序, 포은선생문집목록, 권1 시, 권2 시, 권3 잡저, 습유, 遺墨, 遺像, 권4 年譜考異, 방목, 권5 本傳, 권6 行狀, 권7 부록, 권8 발, 권9 신증부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판본 ⑦의 권8 끝에는 崇禎 紀元後 四丙寅年(1854) 柳厚祚 跋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본은 1677년 간본을 1854년에 중간한 판본이며, 판목 상태가 좋았을 때 인쇄된 것이다. 서체와 판각 상태는 ⑥과 현저히 다르다.

⑧~⑩은 모두 鄭纘輝가 1719년에 補編하고, 1769년에 간행된 4卷 2冊과 續3卷 2冊, 합 3冊으로 구성된 책이다. ⑩은 속편 1책이 빠진 영본이다. 완본의 구성은 卷首, 목록, 권1

시, 권2 시, 권3 잡저, 권4 연보고이, 부록, 제3책 포은선생집속록 속권1·2·3으로 되어 있다.

⑫~⑮는 모두 1900년에 간행된 판본들이다. 1900년 간본은 ⑧~⑩의 1769년 간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앞 시기 판본들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더하고, 속편에도 새로이 첨가한 자료를 '新增'이라 표시하고 덧붙였다. ⑫·⑬은 완본이고, ⑭·⑮는 속편만이 있는 영본이며, 특히 ⑭는 속편 중에서도 두 권만이 있는 영본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포은집』의 영인본은 많은 판본들 중에서 일부 판본이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본은 1900년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본(奎 3435)을 저본으로 하였다. 『한국문집총간 5』의 영인은 1607년에서 간행된 목판본(연대 중앙도서관 811: 96-정몽주-포-라; 행정부분 고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貴345)이 저본이다. 이 1607년본은 규장각에 없는 판본이며, 3권과 부록, 4책으로 구성된 판본이다. 『포은집』은 시기별로도 卷의 편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제대로 된 『포은집』을 만들려면, 여러 판본 전체를 대교한 교감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三峯集』은 鄭道傳(1337~1398)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여러 질의 善本들이 소장되어 있으나 소장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이다.

- ① 奎 726: 木版本, 卷1~14, 7冊 완본
- ② 奎 2957: 木版本, 卷1~14, 7冊 완본
- ③ 奎 3081: 木版本, 卷 1~2, 7~14 外缺, 5冊 영본
- ④ 奎 3082: 木版本, 卷 1~2, 7~8, 9~10, 13~14 外缺, 4冊 영본
- ⑤ 奎 3083: 木版本, 卷 1~2(1冊) 外缺, 영본
- ⑥ 奎 3536: 木版本, 卷1~14, 7冊, 卷 5~6(1冊)은 後寫補充
- ⑦ 奎 4722: 木版本, 卷1~14, 7冊 완본
- ⑧ 奎 3644: 筆寫本, 권4~5, 권8, 2책 外缺 영본

위 ①~⑦은 모두 正祖의 명에 의해 1791년에 7책 14권으로 간행된 목판본들이며, 비록 일부는 영본들이지만 모두 판목상태가 최상일 때 인쇄된 판본들이다. 2권씩을 1책으로 제본하여 영본들의 경우도 책수와 권수가 모두 일치한다. 제목 역시 표지와 본문 모두에 『삼봉집』으로 표시되었다. 이 중 ② <奎 2957>이 『한국문집총간 5』에 영인되어 보급되고 있다.

⑧은 위 7질의 책들과 달리 『經濟文鑑』(권4·5)과 『經濟文鑑別集』(권8)만을 모은 필사본이다. 1791년본에서는 『경제문감』이 권5와 6에 들어가 있고, 『경제문감별집』은 권11과 12에 들어가 있는 것과 구성이 크게 다르다. 특히 ⑧에서는 『경제문감별집』이 권8로 묶여 分卷되어 있지 않다. 책의 표지에는 『삼봉집』 상·하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三峰先生

集』으로 되어 있다. 冊下의 끝, 『경제문감별집』 다음에는 成化二十三年丁未年(1487, 성종 18)에 曾孫 文炯이 쓴 발문이 달려 있다. 이 사본은 당시 문형이 『경제문감별집』을 증보한 8권으로 된 판본에서 『경제문감』만을 발췌한 사본으로 보인다.

규장각에는 정도전의 心氣理에 대한 글에 권근이 주를 붙인 『三峯先生心氣理三篇』이라는 책도 소장되어 있다(奎 3283, 寫本).

『楊若齋集』은 金九容(1338~1384)의 문집으로 책의 본래의 제목은 『楊若齋先生學吟集』이며, 규장각 소장본은 다음과 같다.

- ① 古 3447-25A: 木活字本, 2권 2책
- ② 古 3447-25: 筆寫本, 2권 2책

①은 김구용의 17세손 金相元의 重刊本이며, ②는 ①과 같은 중간본의 필사본이다. 현재 『척약재선생학음집』은 1400년에 간행된 초간 목판본이 전하고 있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은 ①과 같은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한국문집총간 6』의 영인본은 1400년 간행 초간본이 저본이다.

『春堂集』은 卞仲良(1345~1398)의 시문과 행적에 대한 자료를 모은 책으로, 규장각에는 1825년에 간행된 목판본 1책이 소장되어 있다(古 3447-87). 『한국문집총서 1589』에는 『春堂先生遺事』라는 제목으로 같은 판본의 책이 영인되어 있다.

『松堂先生文集』은 趙浚(1346~1405)의 문집으로, 1669년에 星州에서 초간된 바 있는데, 규장각에는 1901년(光武 5)에 重刊한 4권 2책으로 구성된 목판본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古 3428-109, 奎 15523). 『한국문집총간6』의 영인은 규장각 소장본(奎 15523)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陶隱集』은 李崇仁(1347~1392)의 문집으로 초간본은 1406년에 2책으로 간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중간되었는바, 전하는 刊記가 없어 확실한 중간연대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규장각에는 두 종류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임란 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 ① 古 3447-84: 木版本, 2卷 1冊 零本 (5권 중 제1·2권만 남음.)
- ② 奎 3984: 木版本, 5卷 2冊
- ③ 奎 4266: 木版本, 5卷 2冊

④ 奎 4267: 木版本, 5卷 2冊

①은 壬亂 前에 간행된 重刊本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 晚松貴265와 동일 판목으로 인쇄된 판본이다. ①과 만송문고본 모두 판목의 상태가 좋았을 때 인쇄되었다. 만송문고본은 『한국문집총간 6』에 영인되어 보급되고 있는바, 5권 2책으로 구성된 완본이다. 이에 비해 ①은 제1책에 해당하는 권두의 서문과 권1, 2부분만이 남은 零本이며, 권2의 54 帳 左面과 55 帳 전체가 탈락되어 있다. 거의 모든 帳의 종이 가 넓어 판심부에서 나뉘어 좌우 면이 떨어져 있다. 책명은 표지와 본문 모두에 『陶隱先生詩集』으로 표시되었다.

②·③·④는 모두 조선시대말 이후에 판각된 것으로 알려진 동일 목판으로 인쇄된 판본들이다. 세 질 모두 판목상태가 좋은 때에 인쇄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②가 약간 좋다.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으나, ②와 ④는 권1~3을 1책, 권4~5를 2책으로 분책하였고, ③은 5권 모두를 1책으로 제본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책들은 모두 표지의 서명을 『도은집』이라 하였다. 권1~3은 『도은선생시집』, 권4~5는 『도은선생문집』이라 하였다. 장서인으로 보아 『고려명현집 4』 영인본의 저본은 위 ③이다.

규장각에는 李兆年·李仁復·李崇仁의 사적을 모아 1920년에 활자로 간행한 『三賢紀年』(奎 15664, 4권 1책)이라는 책도 소장되어 있다.

『龜亭先生遺藁』는 南在(1351~1419)의 詩文과 事蹟을 후손들이 조선후기에 여러 典籍에서 수집하여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책(古 3428-451)은 1869년에 남재의 손자 두 명의 事蹟을 부록으로 붙여 奎史字 활자본 2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6』 영인본의 저본은 이 규장각 소장본이다.

『陽村先生文集』은 權近(1352~1409)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양촌집의 중요한 판본들이 소장되어 있다. 기존 목록집에는 이 판본들의 간행 시기 등이 잘못 정리된 경우들이 있었다.

① 奎 7473: 木版本, 40卷 7冊

② 古貴 3428-630: 木版本, 1冊 卷29~33, 零本

③ 奎 6329: 木版本, 40卷 10冊

④ 一叢古 819.51-G995y: 木版本, 1冊, 零本

⑤ 古 3428-296: 木版本, 40卷 8冊

①은 권1~40의 구성은 ③과 같으나, 권두의 맨앞에 나오는 世系는 世宗朝에 간행된 초간본에만 들어 있는 것으로 이 판본이 初刊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심부분이 '陽村'·'文集'·'陽村先生文集' 등으로 되어 있고 書體도 조금씩 달라, 세월이 경과되어 초간본의

판목이 많이 훼손된 때에 補刻 판목들을 채워 넣어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①은 1책(세계, 연보, 목록, 명 황제 시, 권1~3), 2책(권6~10), 3책(권11~16), 4책(권11~23), 5책(권24~28), 6책(권29~33), 7책(권34~4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 제6책이 필사본이다.

②는 ①과 판심, 행 및 글자수, 서체, 본문지질, 표지지질 등이 같은 동일 판본이다. ②는 권29~33으로 바로 ①의 필사본으로 채워 넣은 제6책에 해당한다. 아마도 ②는 본래 ①과 함께 한 질을 이루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①·②는 ③~⑤와 서체도 현저히 다르고 종이도 심하게 변색되고 매우 낡아 판심쪽 접힌 부분이 대부분 갈라져 있다.

③·④는 모두 1672년에 重刊된 동일 판목으로 된 판본이다. 판심은 물론 서체 등이 두 판본은 완전히 일치하며, 거의 판목상태도 같았던 때에 인쇄된 것이다. 단, ③은 40권을 10책으로 분책하여, 제4책이 권9~11, 제5책이 권12~15이나, ④는 권11~15가 한 책으로 묶여 있는 영본이다. ③은 완본이나 제40권의 제10장이 훼손되었다. 『한국문집총간 7』 영인의 저본이 ③이다.

⑤는 ③·④와 같은 중간본이 간행되고 40여년이 경과된 사이 水災로 많은 판목이 유실되자 1718년에 빠진 부분을 새로이 판각하여 채워넣어 간행한 판본이다. 일부 판목은 ③·④와 완전히 같고, 일부는 그를 복각한 상태를 가졌으며, 어느 면은 거의 완전히 다른 판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규장각에는 이상과 같은 『양촌집』 외에도 『陽村先生入學圖說』(古貴 181.11-G955y; 목판본 1책)이 소장되어 있다.

『晚六先生遺稿』는 崔瀆(1351~1424)의 유고집이라고는 하나 그의 글로는 시 6수만이 실리고, 나머지는 그의 사적과 관련된 글을 모아 놓은 책으로 연대 등을 알 수 없는 필사본이다(奎 15379; 1冊).

『郊隱先生文集』은 鄭以吾(1347~1434)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조선말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목활자본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奎 15611; 2卷 1冊). 비록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지만, 시 60여수에는 고려말의 중요 인물들과 교류한 것을 보여주는 시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序·傳·記 등 여러 편의 글들이 상·하 양권에 수록되어 있다.

『騎牛先生文集』은 李行(1352~1432)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1872년에 간행된 목판본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奎 12045; 3卷1冊). 이 규장각 소장본은 『한국문집총간 7』 영인본의 저본이다. 『고려명현집 4』의 영인 저본은 1872년 간본에 補遺를 붙여 1964년에 간행한 책이다. 『기우선생문집』은 59張 분량의 얇은 책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李行과 그 집안

의 문집, 행적 등을 모은 책인 『掇感錄』(奎 4457, 奎 12004: 木版本, 5卷2冊)에 들어 있는 卷1 騎牛先生遺稿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治隱先生言行拾遺』는 吉再(1353~1419)의 시문과 행장 등을 모은 책이다. 1573년에 초 간되었고, 1615년에 일부 후대의 사적이 첨가된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1858년에는 목판본과 활자본 두 가지가 간행되었다. 李彙寧이 발문을 쓰고 후손 吉民憲 등이 간행한 4권으로 구성된 목판본과 宋來熙가 교정을 맡아 識를 쓰고 후손 吉冕周 등이 간행한 본집 3권에 속 집 3권을 더한 목활자본이 그것이다. 규장각에는 현재 1615년 간본과 1858년에 간행된 목판본과 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想白古 923.2-G37: 木板本, 本集 3卷 1冊
- ② 古 4650-115: 木板本, 本集 3卷 1冊
- ③ 古 921.91-G37g-v.1/2: 木板本, 1冊 續集4卷 중 1, 2卷 (零本)
- ④ 奎 4257: 木活字本, 6卷(本集 3卷, 續集 3권) 2冊
- ⑤ 古 4650-142: 木活字本, 本集 3卷 1冊(零本)
- ⑥ 奎 12492-1-3: 寫本, 6卷(本集 3卷, 續集 3권) 3冊

①과 ②는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1615년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특히 ①은 종이가 많이 닳고 남아 네 귀퉁이가 마멸되었고 판심쪽 접은 부분이 모두 갈라져 있으나, 판목의 상태가 비교적 좋을 때 인쇄된 것이다. 이에 비하면, ②는 판목의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①과 상당한 시차를 갖고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③은 1858년 목판본으로 李彙寧이 발문을 쓴 4권짜리 續集의 앞 1·2권만의 零本이다. 규장각 목록집에 이 책의 편자를 길면주로 소개한 것은 길민현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 1858년 목판본은 續集 부분만을 증보한 것으로 本集 부분은 ①·②와 같은 1615년 판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의 서체는 1615년 간본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광곽의 크기와 형태, 글자의 크기나 자획의 굵기 등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 이는 새로이 증보된 속집이 1615년 판목을 이용한 것과 한 질의 책을 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1815년 당시 1615년 판목으로 인쇄된 판본의 상태는 아마도 거의 ②와 같았을 가능성이 있다.

④는 1858년 목활자본의 완본이며, ⑤는 그 중 본집 3권만이 남은 영본이다. ⑥은 송재희의 지가 포함된 1858년 목활자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이다.

『한국문집총간 7』의 영인 저본은 목활자본인 ④이다. 『고려명현집 3』의 영인 저본도 장서인으로 보아 ④이다.

『晋山世稿』는 姜淮伯(1357~1402)과 그 후손들의 詩文 및 사적을 모아 놓은 책으로, 제1권에 강희백의 시 90여수와 행장이 들어 있다.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은 두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 ① 奎 6691: 木版本, 4卷1冊
- ② 奎 6859: 木版本, 4卷, 續集4卷, 2冊

①은 1650년대에 간행된 판본이며, ②는 그 보다 후대에 간행된 판본이다. ①의 체제와 내용은 ②의 제1책과 거의 같다.

『麟齋遺稿』는 李種學(1361~1392)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필사본 1책(33帳)이 소장되어 있다(奎 12454). 이 책은 1650년에 간행된 초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古 3648-文62-370), 그 초간본이 『한국문집총간 7』에 영인되어 수록되었다. 규장각 소장 필사본의 내용은 초간본의 내용과 같다.

『仙菴先生文集』은 劉敞(?~1371~1421)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는 1903년경에 간행된 목판본 4권 2책이 소장되어 있다(奎 6851). 권1~3에는 유창의 시문은 몇 편 안되나, 그와 관련된 비교적 다양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고, 권4는 강릉 유씨관련 자료 및 후손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고려시대 문집의 여러 판본들을 현재의 학계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집자료의 활용은 그 중 비교적 善本에 해당하는 판본을 영인하여 연구자들에게 보급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역주도 계속 진행되어 여러 문집들의 역주본이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문헌학적 조사·정리를 토대로 한 자료집 간행은 매우 부족하다.

고려시대 문집은 연대가 오래되어 파손도 많이 되고, 重刊을 거치는 동안 誤字나 脫字도 많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에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인 林椿의 『西河集』의 권4와 권5 부분이 소장되어 있는데,⁷⁾ 이를 그간에 알려진 국내의 조선시대 重刊本들과 대조해보면 중간본의 오자나 탈자가 발견되어, 문맥이 통하지 않던 부분이 제대로 읽히는 곳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重刊本의 異版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고려시대 문집 자료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이판본의 對校·校勘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문집중에는 本人의 死後 세월이 많이 경과된 상태에서 後人들에 의해 편집되고,

7) 『西河集』 Harvard Yenching Library, TK 5568.2/494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의 귀중본 서고 소장)

뒤에 새로이 발견된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후인들의 관점에서 체제를 다시 짜서 편찬한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집들에서 특히 심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이관본들의 對校이다.

가장 좋은 善本을 저본으로 하여, 다른 모든 판본의 내용을 대조하여 注를 달아 내용을 통합하고, 異本 사이의 차이점을 명시해 주며, 판본간의 빠진 詩文들도 표시하고 한 권의 책 속에 통합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권의 책을 통해 해당 문집의 모든 판본들의 내용을 함께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脫字나 誤字가 저절로 드러나고 판본에 따라 누락된 내용을 놓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규장각에는 고려시대인들의 문집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많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규장각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소장처의 고려시대 문집 판본들을 함께 통합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시대인들의 문집중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외부의 소장본들도 누락 없이 판본 대교 통합에 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거의 사장되다시피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판본들은 모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異本들의 대교·교감은 문집자료의 문헌학적 기초정리의 첫 단계이며, 다음 단계로는 연관되는 다른 史書나 문헌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기초적인 史料批判을 통한 정밀 교감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정밀교감 작업은 문집에 수록된 詩文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쓴 것인지를 밝혀주는 작업이다.

이는 우선 각 詩文들이 실제로 본인의 글인지를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고려시대 사람들의 문집류에는 고의든 오류에 의한 것이든 본인의 글, 또는 당시대의 글이 아니거나 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문제되므로 이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조선후기에 편찬된 문집들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고려시대 사람들에 대한 책 중에도 중요한 자료들이 수습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高麗 睿宗이 고려초의 태조 6공신인 申崇謙과 金樂을 애도하여 지었다는 悼二將歌를 지었다는 사실은 『高麗史』에도 나오지만 그 가사 자체는 전하지 않고 있는데, 平山 申氏 문중에서 신승겸을 기리는 『將節公遺事』를 편찬하며 전해 오던 도이장가의 가사를 수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신빙성의 문제는 앞 시대에 편찬된 문집들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문집 자료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고 나면 모두 소중한 자료들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한 교감주를 붙이는 것은 문집자료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밀교감을 통해 각 詩文이 작성된 시기·장소·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교감주로 붙여준다면, 문집자료의 활용 가치가 몇 배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밀교감은 고려시대

8) 박병채, 1994,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국학자료원), pp.399~400.

전공자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해당 개인의 시문 전체와 행적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시기, 어떤 곳에서 일어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문집 속의 시문 중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개인 연구자들이 모두 본격적인 정밀교감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도 없지만, 약식으로 부분적인 그러한 작업을 개인마다 반복하는 것은 소중한 연구인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약식 검토인 만큼 그 정밀도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문집자료의 사료로서의 이용이 어렵고, 그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문집자료의 문헌학적 기초정리는 극히 부진한 반면, 國譯 사업은 의외로 활발한 편이다. 고려시대 문집들도 이미 여러 종이 국역되어 출판되었다. 詩文의 내용은 정밀한 교감본을 토대로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알 때에 그 의미도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소홀히 하고 國譯 사업부터 추진하는 우리의 연구 풍토는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물을 세우는 부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 기초 작업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낭비와 부실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 연구의 기본사료인 『고려사』, 『고려사절요』, 문집들의 규장각 소장본을 새로이 정리하여 보았다. 『고려사』를 비롯한 많은 규장각 소장 판본들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결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소장되어 있거나, 뒷시기 간본의 영본들로 파악한 판본들이 사실은 완본인 앞시기의 좋은 선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임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장 판본들에 대한 일종의 지표조사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파악을 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각 서적별로 이러한 판본에 대한 기초조사에 입각하여 異本들의 내용을 정밀 對校하는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현대 한국사학의 교감본들을 고려시대 자료총서로 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규장각에는 이상에서 검토한 서적들 이외에도 많은 고려시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문집 중에는 『大覺國師文集』 등 승려들의 문집도 몇 종 있으며, 『麗史提綱』·『彙纂麗史』 등과 같은 고려시대 역사를 서술한 사서들, 『東文選』을 비롯한 詩文選集類, 주로 조선후기에 후손들이 事蹟을 모아 놓은 實記·行錄類, 列傳類, 기타 『高麗古都徵』 등 국내의 서적이거나 『元高麗紀事』 등의 중국 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 역시 판본의 기초적인 조사부터 정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地理志類 등에는 고려시대 사료들이 방대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도 각종 조선시대 서적들에도 고려시대 관련 자료들

이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정리도 필요하다. 서적은 아니지만 규장각에는 많은 고려시대 금석문들의 탁본이 소장되어 있기도 한바, 오자가 없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집의 편찬에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검토는 후일을 기한다.

〈표 1〉 규장각 소장 을해자본 『고려사』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대	책	상대	청구기호/상대/책	
箋,世系 수사관 범례	1		1			
목록	1		1			
1	2					
2	2					
3	2				奎3467	책27
4	3					
5	3					
6	3					
7	4					
8	4					
9	4		2		奎3467	책28
10	5		2		奎3467	책28
11	5		2			
12	5		2			
13	6		3			
14	6		3			
15	6		3			
16	7		3			
17	7					
18	7					
19	필사8					
20	필사8					
21	필사8					
22	9					
23	9		4			
24	9		4			
25	10		4			
26	10					

〈표 1〉 계속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태	책	상태	청구기호/상태/책		
箋.世系 수사관 범례	1		1				
목록	1		1				
27	10						
28	11						
29	11		5				
31	12						
32	12						
33	12						
34	?						
35	13		5				
36	13						
37	13						
38	13						
39	14						
40	14		6				
41	14		6				
43	15		6				
44	15		7				
45	15		7		奎3467	책29	결락
46	15		7		奎3467	책29	
47	16		8				
48	16		8				
49	17		9				
50	17		9				
51	18		10				
52	18		10		奎3467	책6	
53	19						
54	19						

〈표 1〉 계속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태	책	상태	청구기호/상태/ 책	
箋,世系 수사관 범례	1		1			
목록	1		1			
55	20					
56	20		11			
57	20		11			
58	21		11			
59	21		12			
60	21		12			
61	22		12			
62	22	결락	13			
63	23		13			
64	23		13			
65	23	결락	14			
66	24	결락	14			
67	24		14			
68	24		15			
69	25		15			
70	25		15			
71	25					
72	25					
73	필사26					
74	필사26					
75	27		16			
76	27		16			
77	28					
78	28					
79	28		17			
80	28		18			

〈표 1〉 계속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태	책	상태	청구기호/상태/ 책	
箋,世系 수사관 법례	1		1			
목록	1		1			
81	필사29		18			
82	필사29		18			
83	필사29					
84	30					
85	30					
86	31		19			
87	31		19			
88	32		20			
89	32		20			
90	32		20			
91	33		20			
92	33		21			
93	33		21			
94	33		21			
95	34		22			
96	34		22			
97	34		22			
98	34		23			
99	35		23			
100	35		23			
101	35		24	결락		
102	35		24			
103	36		24			
104	36		24	결락		
105	36		25			
106	37		25			

〈표 1〉 계속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태	책	상태	청구기호/상태/ 책		
箋,世系 수사관 범례	1		1				
목록	1		1				
107	37		25				
108	37		25				
109	37		26				
110	38		26		奎3467	결락, 책30	奎26637//21~ 23帳만
111	38		26				
112	38		26				
113	39		27				
114	39		27				
115	39		27		奎3467	결락, 책30	
116	40		28				
117	40		28				
118	40		28				
119	41		28				
120	41		29				
121	41		29				
122	42		29				
123	42		29				
124	42		29				
125	42						
126	43						
127	43						
128	43						
129	44		30				
130	44		30				
131	44		30		奎5874	책3	
132	45	결락	31		奎5874	책3	

〈표 1〉 계속

권	奎貴5553		奎貴5554		기타		
	책	상태	책	상태	청구기호/상태/ 책		
箋,世系 수사관 법례	1		1				
목록	1		1				
133	45		31				
134	45		31				
135	46		32		奎3467	책26	
136	46		32				
137	46		32				

※ '결락' 은 일부 帳에 결락이 있음을 뜻한다.